

Seoul Business Letter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소식지

2018
Vol.151





CONTENTS

DEAN'S LETTER

4 - 박철순 서울대 경영대학(원)장

SNU BUSINESS PEOPLE

6 - 진실을 보도하는 Producer Director / 한학수(학사 87)
 - 42만 구독자의 유튜브, 가장 '브라질'스러운 한국인 / 구혜원(학사 11)
 -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카레이서 / 윤상휘(기계공학 경영복전 96)
 - '나'를 위한 '나의 이야기' / 옥민송(경영 12)

SNU BUSINESS REVIEW

32 - 생명보험 정산과 독점적 보험시장 / 석승훈 교수
 - 내부 배태성, 지리적 거리와 해외 자회사의 글로벌 지식 소싱 / 송재용 교수
 - 한국재벌기업에서 정치연관 사외이사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신재용 교수
 - 가격과 배송 속도,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시소 관계 / 임재현 교수

SNU BUSINESS SPECIAL 1

14 - 명예교수 정년소감 / 박수근 명예교수
 - 2018학년도 1학기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수상 / 이유재 교수
 - 경영대학 新가족 세 얼굴을 만나다 / 김준범·이용규·이종섭 교수

SNU BUSINESS SITE SKETCH

40 - 경영대 하이라이트
 - MBA / EMBA 소식
 - 동문 리더스클럽 / 벤처경영기업가센터 소식
 - 기업사회적정당성연구센터 소식

SNU BUSINESS SPECIAL 2

24 - 글로벌 챌린지, 두 번째 이야기
 - 복수전공 수기, 경영학 입문기
 - 경영대학의 창업 멘토, 벤처경영기업가센터
 - 참 관참은 당산을 위한 세 가지 마음 관리법

SNU BUSINESS NETWORK

49 - 전공 소식
 - 교수 소식
 - 동문 소식
 - 발전기금 소식

Seoul Business Letter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인 박철순 편집인 강성춘 편집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58동 601호 학장실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 TEL 02-880-6923 제작 디에이치(주) TEL 031-247-5141 정가 6000원

2018. DECEMBER vol. 151

<경영대학 뉴스레터 광고를 기다립니다> 경영대학 뉴스레터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연 2회 발간하고 경영대학 동문 및 가족에게 매호 20,000부가 배송되는 종합소식지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뉴스레터에 광고를 게재하면 모교를 지원할 뿐 아니라 회사를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경영대학 동문 소식을 기다립니다> 경영대학 뉴스레터에 게재할 동교회 소식 및 동문 소식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동문들에게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TEL 02.880.6923 FAX 02.877.0513 문의 E-MAIL freesia1226@snu.ac.kr 담당자 유희라 *동문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가족 여러분



제가 학장에 취임한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사실을 새삼 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2년간 학장으로서 제가 수행해 온 일들과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많은 일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가족인 선후배 교수님들, 동문, 학생,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학장으로서 수행해온 일들 중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는 일들은 계속 유지, 발전시켜주시고, 마무리 짓지 못한 일들은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2년 전 학장 출마를 할 때 드렸던 약속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교수인사를 포함한 경영대학 내부 살림살이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은 우리 교수님들의 재계약, 승진, 정년보장 등 교수인사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제 학장임기 동안 무려 11명이라는 역대 학장 중 가장 많은 수의 교수님들께서 정년보장을 신청하셨고, 그 중 한 명도 빠짐없이 정년보장을 받으셨고 또 곧 받으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해당 교수님

들께서 열심히 연구하신 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지만, 대학 본부 및 타 단과대학에서 우리 경영대학의 승진 및 정년보장 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저의 노력도 일조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경영대학에 대한 믿음 및 인식은 앞으로도 지속 및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드린 약속은 서울대학교 내 경영대학의 위상과 명예를 알리고 높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2017년 학장 취임 후 서울대학교 내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학장/원장들 협의체인 '서울대학교 학원장회'를 결성하고 이 모임의 회장으로 서울대학교 전체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는 우리 경영대학의 학내 위상을 상당히 올렸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과거 단지 규모가 작은 대학이라는 이유로 우리 경영대학의 교수님들이 거의 받지 못했던 대학본부에서 수여하는 학술연구상과 학술교육상에 있어서도 제 임기 동안 무려 5명(학술연구상 3명, 교육상 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한 1996년 이후 경영전문대학원 설립에 따른 교육부로부터의 증원과 기금 교수의 전임교수 전환에 의한 증원을 제외하고 대학본부로부터의 경영대학 교수증원이 거의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처음으로 대학본부로부터 1명의 교수증원을 승인 받으셨습니다. 비록 한 명에 지나지 않지만 이는 서울대학교 본부와 타 단과대학들로부터 경영대학의 중요성을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렸던 또 하나의 약속은 서울대학교 내에서의 경영대학의 위상과 명예뿐 아니라 서울대학교 외부에서의 그것 또한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저번 뉴스레터에서 말씀 드렸던 다음의 세 가지 과제가 이를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1) 기업 사회적 정당성(Corporate Social Legitimacy)연구센터의 설립 및 운영 2) 아세안 경영대학 network 구축 그리고 3) 벤처경영 기업가센터.

기업사회적 정당성연구센터는 설립 후 2차례에 걸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1차 심포지엄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모시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발표 및 치열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2차 심포지엄에서는 우리 경영대학의 이동기 교수님께서 차등의결권 주식제도에 대해 발제를 해주셨고 이에 대한 활발한 찬반토론을 가졌습니다.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지만 좀더 노력하고 개선하면 대한민국 기업 및 경영자, 그리고 우리 경영대학의 위상과 명예를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하리라 믿습니다.

아세안 경영대학 Network의 구축을 위해 현재 아세안 각국 최고의 경영대학과 이를 위한 MOU를 체결 중이며 이들 현지 경영대학 및 우리 기업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경영대학의 글로벌리더십 및 위상 강화를 위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벤처경영 기업가센터의 경우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뿐 아니라 보육 및 투자유치까지 그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문에서는 벤처경영 연합전공, 혁신창업과정, 경영/기술 특강 등 창업을 위한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보육부문에서는 스타트업 중장기 육성프로그램, 경영대 교수진 및 동문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부문에서는 경영대학 투자펀드, 동문들로 이루어진 벤처스클럽 펀드와 외부 투자기관 연계를 통해, 혁신적 창업기업이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 경영대학 내부적인, 행정적인 과제와 서울대학교 내에서의 경영대학의 위상과 명예를 높이는 과제는 나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외부에서의 위상과 명예를 높이기 위한 세 가지 과제와 재단설립 및 모금은 아직 진행 중이고 마무리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영대학 학부, 석/박사과정의 경쟁력강화, 경영전문대학원의 전략적 방향 정립 및 실행, 그리고 비학위 과정의 혁신적 변화 등의 과제 또한 해당 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많은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방향은 잡았으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비교적 성공적이었던 과제는 지속적으로 유지 및 발전시키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은 향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경영대학 가족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고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장



Han hak soo

1

진실을 보도하는 Producer Director

영화 '제보자'의 실제 주인공
 'MBC 모닝스페셜',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창사특집-아프리카의 눈물' 그리고 'PD 수첩'까지...
 시사 교양·휴먼·보도, 대한민국의 희노애락을 전하는 한학수 동문 이야기다.

한학수 동문(학사 87)

삶의 자양분이 된 대학시절

한학수 PD가 대학에 진학할 당시에는 복수전공제도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입학 전 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세 개의 과를 놓고 고민했다. 하지만 집안 사정이 어려워 가족들과 의논 끝에 경영학과를 선택했고, 이 선택은 자신의 삶에 많은 자양분이 되었기에 만족한다고 한다. 서울대 경영대학에서 배웠던 학문들은 MBC 입사 후 PD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다니면서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나기도 했지만, 생산/마케팅/인사/재무 등에 대한 기초지식은 취재를 할 때에 도움이 되었고, 기업과 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것도 제 안목을 많이 넓혀 주었어요." 이어, 한학수 PD는 "경영학과 백복현 교수랑 함께 입학해서 축제 때마다 막걸리 많이 먹었지요. 참 즐거운 추억이 많았어요."라며 대학시절의 즐거운 기억들을 회상하기도 했다.

나의 선택, PD의 길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님은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를 보기 원하셨지만,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고자 PD의 길을 결심했다. 언론사 입사 준비를 시작할 당시 경영학과 출신들이 그리 언론계에 진출하지 않던 시절이라, 사회과학대학에 있는 후배들과 함께 언론사 준비팀을 만들어서 함께 공부했다고 한다. 기자와 PD의 길을 놓고 고민을 하기도 했지만, 3분 이내의 짧은 리포트를 하는 기자들과는 달리 좀 더 호흡이 긴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PD에 최종 지원했다. "MBC 입사 당시에는 TV-PD를 드라마·예능·시사교양으로 따로 구분하지 않고 선발했습니다. 입사 후 6개월 뒤에 시사/교양 PD 분야에 지원했고, '생방송 모닝스페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MBC스페셜',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MBC창사특집 아프리카의 눈물' 등을 제작했습니다."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세계를 누빌 수 있다는 점과 많은 사람 만나 취재할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꼈다는 한학수 PD.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국·내외의 많은 현장을 누비고 역사의 현장을 기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경험은 잊을 수 없는 추억 중의 하나라고 한다. 한학수 PD는 '인간시대', '일요스페셜' 같은 다큐멘터리를 계속 제작하려 했지만, 탐사보도에 더 두각을 나타냄을 인정받아 현재는 'PD수첩'의 앵커로서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고 있다. "탐사보도의 경우, 법적으로 소송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고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심리적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널리스트가 이런 감시견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그만큼 사회가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람이 있습니다."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결국에는 한 사회의 공동체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며 진실 보도만이 저널리즘의 사명

진실을 보도하기 위한 고난과 사명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절은 '아프리카의 눈물' 5부작 제작할 때였다. 텐트를 치고 야영생활을 6개월 넘게 지속하며,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며 촬영을 해야 했다. 특히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오모계곡에서 원시부족들의 추적을 촬영하면서 위험한 순간을 많이 겪었는데, 술 취한 부족민 중에 일부가 총질을 하면서 스태프들과 함께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했다. 하지만, 육체적 어려움보다 힘들었던 것은 'PD 수첩'을 제작했던 2005년에 황우석 사태를 취재할 때였다고 한다. 논문조작을 밝히는 것도 어려웠지만, 무엇보다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진실을 밝혀도 믿어주지 않는 국민들과 도리어 제작진을 타하는 상황들이었다. 전체주의와 애국주의의 광풍을 겪으면서, 가족들은 지방으로 피신했고 본인은 24시간 경호를 한 달 넘게 받아야 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 진실을 보도했고, 보도 이후 대학마다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생겼고 과학계, 언론계 그리고 정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결국에는 한 사회의 공동체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며 진실 보도만이 저널리즘의 사명"이라고 한학수 피디는 말했다. 또한, 불편한 진실이더라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저널리스트의 숙명이며, 탐사보도의 경우 법적으로 소송에 시달리기도 하고 압박을 받기도 하지만 그만큼 사회가 건강할 수 있기에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했다.

언론인으로서 소명과 미래

"언론인으로서 제 소명을 다하고 싶습니다. PD로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다가 언론인으로서 은퇴하고 싶습니다."라며 언론인으로서의 은퇴에 대한 희망을 말했다. 그는 20대에는 군부독재에 저항하느라 힘든 시절을 보냈고 30대에는 저널리스트로서 열심히 취재했으며 40대에는 정권이 만들어낸 귀양살이와 갖은 탄압으로 고된 시간들을 보냈다. 이제 50대에는 초심으로 돌아가 언론인의 기본을 다하는 공정한 보도를 하고 싶으며, 은퇴 이후에는 세상 시름을 놓고 작고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 한학수 동문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동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경영대학 동문 모두 하시는 일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서로가 힘을 조금씩 모아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인간적인 사회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2

42만 구독자의 유튜버, 가장 '브라질'스러운 한국인

구혜원 동문(학사 11)

한 가지의 직업은 NO!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하는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 달리는 그녀가 있다. 미디어 회사에 근무하며 COREANISSIMA 채널의 유튜버로서 활동하고 있는 구혜원 동문의 특별한 이야기를 전한다.



현재 활동분야

올해 다닌 스타트업 회사는 SNS를 기반으로 쿼즈, 기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수익을 얻는 모바일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회사였습니다. 저는 주로 브라질 시장에 퍼블리시 되는 콘텐츠들을 매니징하고 있고, 기사와 영상 분야에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COREANISSIMA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포르투갈어로 ssima는 최상급 어미입니다. 즉 '가장 한국적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브라질을 주 타겟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한국의 문화를 브라질에 알리거나, 브라질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한국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한국인으로서 겪고 느낀 브라질에 대한 인상이나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경영학이 아닌 유튜브, 시작하게 된 계기

저는 한 가지 직업으로 사는 것보다, 다양한 일을 하면서 프리랜서로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유튜브도 하고 포르투갈어 번역이나 소설 쓰는 일도 하고, 좋은 기회에 스카웃을 받아 스타트업에서도 일했었죠.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된 건 포르투갈어를 계속 배우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학부 3학년 때, 브라질로 봉사활동을 가면서 브라질과 포르투갈어를 처음 접했고, 이후 교환학생으로 브라질에 다녀왔는데 한국에 돌아오니 그동안 배운 포르투갈어를 점점 잊어버리는 게 아쉬웠어요.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남자친구가 한국에서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방송을 하면서 한국어가 빠르게 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방법으로 공부하려는 아이디어를 갖게 되었고, 스크립트를 쓰고, 말하고, 구독자들과 댓글로 소통할 수 있는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버로 활동 중의 에피소드

유튜버로 이름을 알린 덕분에 만났던 분들이 있어요. CNN 코리아 아시아 총괄 매니저님 그리고 구독자가 무려 1,000만이 넘는 유명한 브라질 유튜버 부부였는데요. 다들 저의 팬들이 댓글을 통해 저를 추천해 주셔서 만나게 되었죠. 이런 일들이 조금은 생소했지만 그래도 저를 알아봐 주신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기쁜 일이었죠. 올해는 언론정보학과 후배들이 저를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과제라고 해서 흔쾌히 도움을 주었는데 영상을 너무 잘 만들어서 KBS1 열린 채널에 선발되어 방영(2018년 5월 11일 2시 KBS1 '오이 뿌라제')이 됐어요. '민간외교관의 하루'라는 주제로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 브라질 팬과의 인터뷰, 스페인 대상 유튜버 친구와의 만남, 유튜브 영상을 기획하고 촬영하는 모습들을 담아냈어요. 제목은 '오이 뿌라제'인데 포르투갈어로 '만나서 반가워요.'라는 뜻이랍니다.

새로운 분야의 도전, 힘들었던 기억

유튜브를 처음 할 때에도 익숙지 않은 편집 프로그램이나, 카메라 조작 같은 것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썸네일 만드는 방법, 조명 구조 잡는 법 등 하나부터 끝까지 혼란스러웠고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도 다른 유튜버들이 공유하는 정보를 찾아서 스스로 공부했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세 가지 케이스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부딪쳐보고, 필요할 때는 주위의 도움도 받으면서 하나하나 직접 배워나가는 방법으로 극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포르투갈어를 공부하는데 다른 언어에 비해 정보가 부족한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처음 브라질 교환학생을 갈 때도 교환학생을 간 사례가 없어서 고생했어요. 현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처음으로 다녀왔어요. 그 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후배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주고자 강연을 했고, 덕분에 브라질 교환학생을 가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목표

첫 번째는 유튜브 구독자 100만을 넘고 싶어요. 현재에는 약 42만 명 정도의 구독자가 있는데,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우선 매주 영상을 2개씩 올리는 게 가까운 목표입니다. 그리고 요즘 소설을 쓰고 있는데, 제가 쓴 소설이 카카오페이지에 올라가는 것이 두 번째 목표예요. 어렸을 때부터 변하지 않았던 꿈이 작가였는데, 순수문학으로 글 쓸 정도의 재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취미로 글을 쓰고 있어요. 최근에는 로맨스 판타지 소설을 쓰고 있는데, 팬들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카카오페이지에 입성하거나, 정기적으로 연재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싶어요. 또한, 포르투갈어를 좀 더 완벽하게 하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스페인어도 배우고 싶어요. 커리어적인 측면에서는 크리에이터로서, 또 마케터로서 역량을 쌓아가야 할 것 같아요.

구혜원 동문이 전하는 이야기

저는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믿어요.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결국 내 인생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도 뭐든 겁먹지 말고 일단 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사실 저 스스로도 요즘 나이가 들면서 겁이 많아지는 게 느껴져요. 아마도 잃을 것들이 많이 생겨날수록 도전적인 결단을 내리기보다는 안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쉬울 때, 가능한 많이 경험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도전은 어느 순간에는 실패처럼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Sam Johnson



3 도전은 두려워하지 않는 카레이서

24시간 동안 진행되는 Blancpain GT Series Endurance Cup 대회를 한국인 최초로 참가해 아마추어 부문 종합 3위, 중국 상하이 서킷에서 펼쳐진 Blancpain GT Series Asia 대회에서 데뷔 2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쥐며 슈퍼카 대회에 급부상하고 있는 카레이서가 있다. 바로, 독일 RINALDI 소속의 윤상휘 동문이다. 홍콩 금융 오피스를 뒤로하고, 카레이서로 변신한 그의 특별한 도전기이다.

PROFILE

참가대회 & 수상이력

- 2018년 Full season GT3 AM Class, Blancpain GT Series Endurance Cup entry no 488, carFerrari 488 GT3 3rd in AM Class Total 24hours of SPA (한국인 최초 참가)
- 2018년 1st GT4 class, Blancpain GT Series Asia, Shanghai Round
- 2017년 full season Blancpain GT Series Asia, 3rd Overall & 1st Pro-AM Class round6 Zhejiang Event
- 2017년 1st in AM Class, Round1 Audi R8 LMS Cup
- 2017년 2nd Gulf 12 Hours Motorsport Endurance Race at Yas Marina Circuit, Abu Dhabi
- 2016년 Audi R8LMS Cup, Lamborghini Supertropeo

윤상휘 동문(기계공학·경영 복수전공 96)

첫 번째 도전, 경영학 입문기

윤상휘 동문은 96년도에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로 입학하여 2001년도부터 경영학 복수 전공을 시작했다. 사실 처음 이공 계열을 선택하고 공부할 때부터 그의 꿈은 연구원은 아니었다. 오히려 경제와 기업 경영 쪽에 항상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경영학에 오랫동안 관심이 있었다. 군 제대 후 경영학과로의 복수 전공이 가능하도록 학칙이 바뀌었고, 경영학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Kellogg HKUST Executive MBA 프로그램에서 석사를 마친 것도 경영학 공부에 대한 그의 열정의 연장선이었다고 한다. “이공계와 경영학을 함께 공부함으로써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세상에 대한 이해도 넓어졌어요”

두 번째 도전, 트레이더

2003년 졸업 후 그는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에 입사했다. 세일즈 생활을 하던 중 싱가포르에서 복잡한 파생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영국 트레이더의 모습에 반했고, 사회에서 하나의 꿈을 가졌다. “저의 공학 전공의 배경을 살린다면 트레이더로서의 업무를 잘 해내리라 생각이 들었어요. 신입사원 연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업무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는 선배의 말을 들었어요. 연수원에서 클래스 TOP을 이뤄내고, 이것을 바탕으로 트레이더로 직무를 변경할 수 있었죠.” 이후 정식으로 3년 동안 싱가포르 지점에서 파생상품 트레이더 주니어로 경력을 쌓고, 최단기간에 Vice President로 승진 후 홍콩지점에서 파생상품 스트럭처링 업무를 맡기도 했다. 2007년 JP모건 홍콩지점으로 최연소로 Executive Director로 스카우트 되어 아시아 파생상품 트레이딩 총괄업무, Managing Director로 승진 후에는 Head of Currencies and Emerging market Trading Asia의 업무를 진행했다.

세 번째 도전, 인생의 터닝포인트 카레이서

윤상휘 동문은 JP모건에서 근무하며 우연한 기회에 슈퍼카를 접했고, 레이싱 드라이빙 스쿨에 가서 차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드라이빙 스쿨에 다니면서 점점 흥미를 느꼈어요. 회사 생활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열정을 가지고 일했고,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카레이싱을 처음 접했을 때도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이었죠.” 특히 그는 카레이싱은 사람과 기계의 한계치에 도전하는 게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JP모건에서 일과 카레이싱을 함께 병행했지만, 보다 본격적으로 카레이싱에 몰두하고 싶어 2018년 3월 JP모건을 퇴사하고 본격적으로 카레이서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 41세의 그의 나이,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설레는 일하기에 늦기 전에 도전하고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도 해보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무엇이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학 생활이 유일하게 그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결심했다고 한다. “카레이싱은 38세 입문, 그리고 본격적으로 도전한 나이 41세. 적지 않은 나이죠. 하지만 제 한계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데뷔 후 처음 유럽 서킷에 도전 했을 때, 그의 팀원들 모두 유럽 서킷에 대한 경험이 없었다. 시차 적응을 하는 것부터, 차 운영에 익숙해지기까지 고난의 연속이었다. 특히 유럽 경기는 적응할 시간도 없이 일정이 매우 빠듯한 편이라 더욱 도전적이었다. 짧은 시간 내에 서킷을 배우고, 팀원들끼리 역할을 잘 나눠서 해야하기 때문에 매우 힘들면서도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카레이싱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과 합을 맞춰야 해요. 차와 드라이버, 마케니, 엔지니어, 팀 감독 등이 한 몸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운도 따라주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죠. 경기 중에 예기치 않은 변수들 때문에 좌절을 겪기도 하지만 팀원들과 함께 극복하는 과정에서 만족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희열을 느낍니다.”

Trial & Error, 도전하라!

좋아하는 일에 늘 도전하며 지내고 있는 윤상휘 동문은 마지막으로 경영대학 후배들에게 한마디 전했다. “좋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이루어 냈을 때의 즐거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상 굉장히 힘이 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제가 아는 유일한 방법은 Trial & Error밖에 없습니다.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도 해보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무엇이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학 생활이 유일하게 그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진 팀에서 국제 대회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더 많은 모터스포츠 무대를 경험하면서 모터스포츠가 한국에서 더욱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의 새로운 꿈을 응원한다.

4

‘나’를 위한 ‘나의 이야기’

불확실한 미래에서 오는 불안, 더 성장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는 사람들.
나를 긍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
‘나’를 인정하고 내 맘을 챙김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Mind Fitness 프로그램 마인딩 옥민송 대표를 만나보았다.

옥민송(경영 12)

Ok Minsong



마인딩 프로그램, 시작한 계기

어렸을 때부터 어떤 방식으로든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러다 대학교 3학년 때 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스타트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할 기회를 얻었죠. 2년 가까이 근무했어요. 하지만 매일 12시 넘어 퇴근하고 주말도 없는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이런 꿈을 잊게 되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회사의 방향도 처음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점점 달라졌고요. 결국 그만뒀죠. 그런데 그만두고 나니 제가 너무 무기력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 자신을 이해하기 힘들어 자꾸 자기 비난을 하게 되었고요. 덩달아 자존감도 낮아졌죠.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전문 서적을 찾아보며 제가 ‘번아웃’ 상태라는 걸 알았어요. 그제야 제 상태를 인정하고 제 마음을 다독이기 시작했죠. 지금의 저로 돌아오기까지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이런 과정에서 ‘마음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왜 없을까?’, ‘내가 한 번 만들어 볼까?’ 하며 창업하게 됐죠.

‘자존감’이란

제가 생각하는 자존감이란,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흔히 자존감은 고정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상황에 따라, 개인의 노력에 따라 바뀌는 유동적인 개념이죠. 타고난 기질로 인한 불변의 상태가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 바뀌는 유동적인 개념이라는 게 전 좋았어요. 건강한 몸을 위해 운동을 하듯 건강한 마음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육을 키워가는 과정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나에 대해 잘 알고, 나의 다양한 모습을 받아들이고,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가며 건강한 ‘자존감’을 키울 수 있으니까요. 불안한 상황에서 덜 흔들리고, 나를 자책하기보다 응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 행동이 다시 자존감을 강화하고요.

마인딩 프로그램 소개

마인딩 프로그램은 정식으로 3달 과정이고, 4주 과정으로 나눠서 신청할 수 있어요.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른 미션을 온라인으로 수행하면 다음 날 전문 트레이너의 피드백이 나가는 형태예요. 어떤 형태로 정의해서 말한다면 읽고, 쓰고, 행동하고 대화하는 온라인 마음 관리 프로그램이죠. 간단하게는 ‘마음의 헬스장’이라 볼 수 있고요. 트레이너 역할을 하며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은 심리학과 석사 이상, 심리상담사 2급 이상 소지자들로, 주로 현직 상담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프로그램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코칭하고, 심리적인 지지와 응원을 하기도 하죠. 마인딩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에서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남들보다 예민하게 느끼는 감정이나 일은 무엇인지,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는 나에게 맞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마음 관리법을 알고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의 진솔한 이야기가 많이 담기는 서비스인 만큼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애초에 익명으로 참여하게 돼요. 많은 사람이 더 솔직하게 나를 마주하길 바라니까요.

어려웠던 점 & 가장 뿌듯했을 때

마인딩 프로그램 자체가 사람들에게 아직 낯설다는 것이 어려웠어요. 사실 마인딩은 심리상담 서비스도 아니거든요. 상담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친숙하지 않은데, 직접 실천하는 CBT(인지행동치료)기반 프로그램이라니 더 낯설죠. 외국에서는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처음이니 더 그렇고요. ‘도대체 저 프로그램은 뭐야?’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고, 설명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어요. 또, 제가 심리학 전공자가 아닌 것에 대한 의문에도 답해야 했고요. 가장 뿌듯했을 때는 사용자들의 후기를 볼 때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마인딩을 만나 행복해졌다’, ‘의식적으로 나를 챙기는 즐거움을 알게 됐다’ 등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너무 행복하죠. 종종 유저 인터뷰도 진행하는데 마인딩이 그분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들을 수 있어 너무 좋아요. 최근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던 분이 본인의 친한 친구에게 프로그램을 선물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셨던 경우도 있었는데요. 내가 하는 것을 넘어 친한 친구에게 선물하고 싶을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그렇게 마음 관리의 유용성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이 참 좋더라고요.

마인딩 프로그램의 목표

마인딩은 가성비 좋은 심리 서비스 제공하며 ‘일상적으로 내 마음 챙기는 것이 당연한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사실 마음의 문제가 어떻게 가성비로 설명이 되느냐 하며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안 그래도 낯선데 비싸기까지 하면 정말 심각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용하겠어요. 사실 상담의 경우 1회에 10만 원, 10회 정도를 진행해야 하니 100만 원 가량 드는데 이걸 비용 자체로도 큰 부담이거든요. 결국 심각해진 후에야 이용하게 될 거고, 그사이에 많이 힘들겠죠. 조금이라도 좋으니 내 마음을 위해 비용을 지출해 보고, 그 효용을 느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인딩은 보다 낮은 가격대에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요. 가격은 낮추고, 유용성은 높였죠. 얼마 전에 ‘트렌드코리아 2019’에 2018년 트렌드 상품으로 꼽히기도 했는데, 사람들이 마인딩을 통해 ‘내 마음을 위해 돈을 써보는 첫 경험’을 하는 것 같아 기쁩습니다.

명예 교수 정년소감



곽수근 명예교수

지난 8월 31일, 문화관 중강당에서 교수정년 퇴임식이 열렸다. 1988년 부임하여 30년간 회계학 연구와 강의를 한 곽수근 교수 그리고 1989년 부임하여 29년간 마케팅 분야에서 연구와 강의를 진행한 김재일 교수 두 분의 교수가 주인공이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교수로서의 삶에 충실하며 스승으로서 연구자로서 30년간 헌신한 곽수근 명예교수의 정년 소감을 들어보았다.

나는 1988년 9월에 조교수로 발령을 받아 지난 8월 말일에 정년을 맞이하기까지 꼭 30년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 재직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서울올림픽이 열린 해에 관악산에 들어와서 평창올림픽이 열린 해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년은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미래를 다시 설계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무엇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는지를 생각해봅니다. 크게 세 가지의 힘이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인연의 '인'자는 하늘의 뜻이고 '연'자는 사람의 뜻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에서는 내 의지와 관계없는 귀한 만남이 있었고 그러한 만남을 잘 이어간 덕분에 스스로 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이룰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서울대 경영대학에서 만난 친구들과 선후배들은 나를 결코 현재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자극하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의 미래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서울대 교수를 포함해서 내 이력서에 적혀있는 역할들 대부분은 누군가가 내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내게 도움을 주었던 많은 분에게 감사의 마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서 살아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둘째는 용기가 길을 열었습니다. 용기는 결정적인 변곡점에서 나를 바꾸어줄 수 있었습니다. 대학 재학시절에 용기를 내서 교수 연구실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나를 이름으로 불러줄 수 있었고 그들의 격려 덕분에 나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별 볼 일 없었던 처지였지만 용기를 내서 한 여인에게 프리포즈를 하였기 때문에 오늘의 가정을 이룰 수도 있었습니다. 월급 많이 주던 직장을 버리고 다시 공부를 시작한 것도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또 재정적 여유가 없었음에도 가족과 함께 유학을 떠난 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밝히는 용기는 사람들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해주었습니다. 용기는 내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갈 수 없었을 길을 가도록 해주었습니다.

셋째는 진정성과 뜻이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습니다. 아닌 것을 그런 척 하거나 인 것을 아닌 척 하는 것은 결국에는 드러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할 때는 떳떳하지 않으므로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거나 아닌 것처럼 행동하게 되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의 신뢰와 도움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를 보여주고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왜 하는지를 스스로 묻고 남에게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마음 때문에 편한 길 대신에 힘든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운명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좋은 뜻을 갖고 용기를 내서 도움을 청하였을 때 결코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학창시절에 나는 많은 친구와 선·후배를 만나면서 이런 것들을 몸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 이끌려서 참여하게 된 학회 활동과 청계천 독방 판자촌의 활빈교회 배달학당에서의 야학 활동 등은 책에서 배울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교수를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미래의 불확실성과 자신감 부족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학생들에게 좋은 뜻을 갖고 용기를 내서 미래에 대해 도전을 하면 반드시 하늘이 돕는다는 믿음을 심어주고자 하였습니다. 서울대 경영대학의 젊은 후배들은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특별한 재능을 많은 사람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용기를 내서 더 많은 일에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2018학년도 1학기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수상

이유재 교수



서울대학교는 창의적이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탁월한 연구실적을 낸 교수들을 선정하고 지난 5월 16일 시상했다. 경영대학에서는 이유재 교수가 2018학년도 1학기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유재 교수는 고객 만족 경영과 서비스 마케팅의 이론적 체계를 수립하고 사회과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연구방법론인 구조등식모형의 적용 및 발전에 기여, 고객가치경영의 새로운 지평선을 개척했다. 한국서비스품질지수, 공공기관 만족도 지수 등 널리 사용되는 서비스품질모형을 개발했으며,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17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서비스 품질, 고객 만족 증진에 공헌했다.

서울대 학술연구상 수상 소감

개인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해온 연구 노력이 인정을 받은 것 같아 기쁩니다. 아울러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된 것은 가족, 동료, 공동연구자 등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연구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게 지적 자극을 주었던 제자들까지도 이 영광을 나누고 싶네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꾸준히 연구자의 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구의 영원한 뮤즈인 고객 속으로요.(웃음)

주요 연구분야

제가 애정을 가지고 연구하는 주요 분야는 서비스와 고객만족입니다. 서비스품질이나 고객만족의 측정과 이것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2000년 개발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는 싱가포르에서 채택되어 우리나라의 연구 모형을 국제적으로 수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은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소비자 만족지수를 공공부문으로 확장시켜 개발한 ‘공공기관 고객만족지수’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서비스품질이나 고객만족이 우리의 삶이나 행복에 어떻게 기여하는가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연구 이야기

제가 쓴 논문 중에서 구글 학술 검색에 따르면 현재 세계적으로 2만 회 이상 인용된 논문이 있습니다. 구조등식모형을 사용해 연구 모형을 검증하고 분석 결과를 평가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연구인데요. 구조등식모형은 사회과학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연구방법론인데 이 방법론을 사용하는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하려고 노력했던 논문입니다. 사실 제가 이 논문을 쓸 때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많은 학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해준 효자가 된 셈이네요.(웃음) 개인적으로 논문의 공헌도에 대해서 선부르게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을 얻는 계기가 되었지요. 그리고 연구방법론의 활용과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측면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연구자로서 신념 그리고 덕목

‘어떤 주제를 연구하면 학술지에 게재하기에 유리할까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주제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사는 것처럼 이리 재고 저리 재는 것 보다는 일단 관심이 있는 주제를



2018학년도 1학기 서울대 학술연구상 특별강연 단체사진

선택하면 그 주제에 성실히 매달리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연구든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성과가 나온다고 믿거든요. 항상 비교하다 보면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처럼 다른 주제에 대해 미련을 갖게 되고 내 연구에 몰입하지 못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내가 한 만큼 받는다고 생각하고 무슨 연구를 하든지 끈기 있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요. 이런 자세로 연구하면 마음도 편하더군요. 제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했던 덕목은 아이디어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인내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 논문 한 편도 7개 학술지에서 게재 불가 판정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오히려 더 좋은 학술지에 게재되고 학계의 호평을 받고 있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은 야구만이 아니랍니다.

앞으로의 연구계획

최근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는 ‘고객 참여’가 기업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특히 고객참여행동의 두 가지 유형에 관심이 있는데 첫째는 ‘고객시민행동’으로 고객이 자발적으로 보이는 행동이 기업이나 다른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이고요. 둘째는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 ‘고객불량행동’으로, 고객이 자신의 역할이나 책임을 넘어서서 보이는 행동이 다른 고객이나 기업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지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논란이 되는 고객의 갑질이지요. 이러한 경우는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넘어서는 ‘불량’ 행동이 직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다른 고객에게 가야 할 자원을 왜곡시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지요. 고객 참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어떻게 하면 고객시민행동은 활성화하고 고객불량행동은 예방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기업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저도 불량교수나 불량남편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경영대학 新가족 세 얼굴을 만나다

2018년 9월 1일자로
신임교수 세 분이 부임했다.
앞으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과
함께 걸어갈 세 분의 교수들
소개한다.



김준범 교수



전공
마케팅

학력
PhD (Management), UCLA, 2009
PhD (Mechanical Engineering) MIT, 1999
MS (Mechanical Engineering) MIT, 1995
BS (Aerospace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2

경력
- Associate and Assistant Professor,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ong Kong (2012-2018)
- Assistant Professor,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Atlanta, GA (2009-2012)
- Senior Software Engineer, Siebel Systems Inc. (acquired by Oracle), San Mateo, CA, (1999-2004)

경영대학의 일원으로서의 소감

우선 경영대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하여 매우 기쁘며 또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해외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서울대에 서 공학학사를 취득한 후 미국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였고 그 후 미국 실리콘밸리의 첨단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5년간 근무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미국과 홍콩의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 외국의 학생들을 가르치며 지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의 젊은 청년들을 강의실 안팎에서 같이 대화하고 또 지도할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기대됩니다.

주요연구분야

전공은 마케팅이며 그중에서도 계량경제학이나 통계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온라인 마켓에서의 수요분석 및 예측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를 주로 합니다. 이미 많은 매체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요즘은 회사들은 고객에 대한 많은 온라인 자료들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소비자들의 온라인상에서의 정보 검색 혹은 구매 등의 행동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최신 기법으로 분석하여 자사 및 경쟁사들의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선호도를 정량화하고 그를 바탕으로 시장 경쟁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 중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이나 온라인 스토어의 검색창에서 쓰는 “검색키워드”를 이용하여 기계학습기법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제품구매를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공학전공, 경영학의 길로 들어선 계기

저는 원래 공학도였으며 실제로 미국의 MIT 공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친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다년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직장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100% 공학도였으며, 그 당시에 저는 “제품만 좋으면 시장에서 성공한다”는 다소 극단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첨단 소프트웨어 산업에서조차도 좋은 제품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싼 일선에서 업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관성적으로 일을 해결해 간다는 현실에 대해 불만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질 학문인 경영학을 택하여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공부하고자 늦게 공부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참,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재주”를 부리는 사람과 그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예를 회사 안과 밖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는 애플을 공동 창업한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겠지요.

경영대 학생들에게 전하는 이야기

교수님들은 강의실 내에서는 주로 지식을 전해 주시지만, 강의실 밖에서는 지혜를 보여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많이 질문하세요! Do not negotiate with yourself first, just ask.

02



이용규 교수



전공
재무회계

학력
-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Columbia University), 경영학(회계학) 박사
-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회계학 석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경력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2018/09-현재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조교수, 2013/09-2018/08
- 미국 뉴욕시립대 (CUNY Baruch College) 회계학과, 조교수, 2008/09-2013/08
- 공인회계사(KICPA), KPMG 삼정회계법인, 2000/12-2003/05

경영대학의 일원으로서의 소감

저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미국과 국내 타 대학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9월에 모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타 대학에 있었던 지난 10년 동안에는, 제가 보람을 느끼며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는 대학이라면 어느 곳이든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지내 왔는데, 막상 모교로 옮기게 되니 (좀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특히 제가 경영대학 석사과정 조교로 있을 때 수업을 들었던 교수님들과 같은 직장에 있게 되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여기 학생들도 제 대학 후배가 되는 분들이기에 조금 더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주요 연구분야

저는 회계학 세부전공 중 재무회계 및 관리회계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 분야에서는 이익조정과 같은 기업의 보고행위 및 거시경제지표 예측에 있어서의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논문들을 쓰고 있습니다. 관리회계 분야에서는 경영자의 성과평가에 관심이 많으며 이를 재무 관련 주제와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 논문에서 경영자 보상에서의 비재무성과지표의 사용이 주가급락위험을 낮추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의할 때 중요한 점

(조금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강의할 때마다 어려운 개념을 되도록 쉽게 설명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교재에 나와 있는 개념의 정의를 적어도 제게 맞는 쉬운 말로 풀어 설명하거나, 관련 사례들을 다루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제 설명을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적절한 질문을 던지며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강의 내용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의하는 것을 즐기려 노력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개념이 잘 이해될 때 일종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겠지만, 강의 듣는 것을 보다 즐길 수 있도록 가끔 짧은 농담을 던지기도 합니다.

경영대 학생들에게 전하는 이야기

교수로서 대학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연구, 강의 및 봉사로 나누어 본다면, 당분간은 연구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논문의 양이 많아졌는데, 우선 현재 작업중인 논문들을 학술지 게재 등을 통해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서울대의 여러 교수님, 학생들과도 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강의 및 봉사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지만, 기회 될 때마다 가능한 즐기면서 해볼 생각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기회에서 경영대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종섭 교수



전공
재무금융

학력
- PhD Finance, NYU Stern, 2011
- M.Phil Finance, NYU Stern, 2009
- M.Sc. Financial Eng., Columbia University, 2004
- B.Sc. Mechanical Eng., Summa Cum Laude,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3

경력
- Associate Professor, SNU Business School, 2018-present
- Assistant Professor, University of Florida Warrington College of Business, 2010-2018
- Industry experience: RiskMetrics Group (credit analytics), Deutsche Bank AG (rates desk).

경영대학의 일원으로서의 소감

2003년 여름 학부 졸업과 함께 미국 유학길에 올라 학업을 마친 후, 15년 만에 모교인 서울대학교에 부임하게 되어 큰 기대감과 설레는 마음으로 첫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도 훌륭한 학생들과 동료 교수님들과 함께 활기차게 연구 및 강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개인적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주요 연구분야

제 박사 과정 기간을 포함하여 지난 10여 년간 저는 기업 재무, 기업 지배 구조, 기업 신용에 관한 주제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기업과 국가의 신용 위험도를 신용 부도 스왑(CDS) 상품의 시장 자료를 통해 추정하고, 실증적으로 기업의 신용 위험과 국가 부도율 간의 상관관계(연관성 혹은 절연성), 기업의 신용 위험도가 해당 기업의 주식 평가와 주가지수의 정보적 유의미함에 미치는 영향(연관 자본 시장의 정보적 통합성), 그리고 주식운용 기법 중 기관들에 의해 선호되는 모멘텀 투자 기법에 대해 그 운용기법이 가지고 있는 큰 하방 위험도(momentum crash)를 주식 시장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관련 채권과 신용 스왑 가격을 이용해 연관 헤징 하는 cross-security momentum hedging 방법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현재는 제 연구실 석박사 학생들과 함께 관련 연구 주제들을 한국 채권 시장과 재벌 기업의 주식/채권 시장 가격으로 확장 적용하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영대 학생들과의 교류

서울대 경영대 학생들은 제 기대감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들임을 매일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 중 학생들과의 교제가 그래서 더 즐겁고 제 연구와 강의에 대한 열정을 북돋아 주며, 때로는 그를 통해 영감을 받기도 합니다. 앞으로 강의에서 뿐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학생들과 진로 상담 및 연구 활동 등을 통해 좀 더 가깝게 호흡할 수 있는 계기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떤 고민을 하며 어떻게 꿈을 키워가고 있는지, 또 그 고민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어떠한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필요할 때에 스투럽없이 제 오피스를 찾아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선배 같은 교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영대 학생들에게 전하는 이야기

유학 전 마지막 학기 SK 경영관에서 수강했던 파생금융상품론 수업이 문득 떠오릅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저는 같은 과목을 제가 수강하던 바로 그 강의실에서 열정적인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학도에서 경영학도로의 긴 여정을 시작하려 했던 그 강의실 속의 저를 통해, 또 그때의 저의 선배 교수님이 저에게 주셨던 가르침과 영감, 재무금융 분야에 대한 열정들을 통해, 저는 우리 후배 학생들을 위해 어떠한 마음가짐과 열정으로 강의에 임하여 저의 역할을 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 제가 맡은 강의들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재무금융 분야를 친근하게 느끼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서울대학교 경영대의 일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영대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챌린지, 두 번째 이야기

'2018 글로벌 챌린지'를 통해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총 20명의 학부생들이 홍콩으로 떠났다. 2박 3일 동안 글로벌 기업을 방문하고 경영대학 동문을 만나는 일정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방문해 현지 업무 환경을 경험하고 실무자로부터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새로운 배움을 만들었다. 특별한 여름 방학을 보낸 심규덕(학사 11) 참가 학생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You cannot create experience, You must undergo it
- Albert Camus

경험은 창조하는게 아니라 반드시 겪어야 얻게 됩니다
- 알베르 카뮈

참가 후기

JP Morgan

정철성 동문을 비롯한 선배 동문들이 우리에게 기업에 대해서 설명 해주었다. 흔히 상경계열의 분야라 생각했던 바와 달리 정철성 동문은 공학을 전공하였고, 초기에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느꼈던 점들을 이야기해주었다. 학생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금융 투자은행에 관련하여 해박하게 알고 있는 학생은 드물었다. 때문에 많은 학우들이 금융기업, 그 중에서도 외국계 금융기업에서 일하기를 망설이는데, 공학도로서 JP Morgan에서 당당히 역할을 해나가고 계신 정철성 동문은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또한 한국인이 홍콩과 같은 국제적인 도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미래에셋

방문한 기업 중에 가장 친숙한 한국 기업이었다. 누구보다 열정을 갖고 세계 경제의 흐름과 홍콩 시장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던 이필상 동문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셨다. 또한 미래에셋이 한국 금융기업으로서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또 다른

능성을 보여주었다. 여태껏 한국은 제조업에서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탄생하였지만, 금융업에서의 세계화는 우리에게 다소 낯선 개념이었다. 미래에셋의 창업가이신 박현주 회장의 기업 정신을 기반으로 세계 속에서 국부를 창출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는 기업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랑스러웠다.

Intel

홍콩에서 방문한 기업 중 유일한 제조기업이었다. Intel은 우리에게 친숙한 기업이었지만, 구체적인 업무나 특징에 대해서 아는 바는 많지 않았다.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최초로 개발한 기업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기술발전에 힘입어 소프트웨어나 네트워킹, 커뮤니케이션 장비를 개발하고, 서비스로까지 영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이를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는 Intel의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또한 Intel의 그러한 노력이 우리 삶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고마운 마음마저 들었다.



동문과의 대화, 손원준 동문과함께

맥쿼리

맥쿼리는 JP Morgan과 같이 세계적인 금융 회사이지만, 호주 기업으로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기업이였다. 처음 맥쿼리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낯선 마음이 있었지만, 다른 어떤 기업보다 우리에게 친숙한 분위기를 조성해주었다. 우선 기업의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인력들이 직접 우리에게 본인들의 업무를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그들과 한 조가 되어 주어진 활동을 해나가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다. 마지막에는 기업의 CEO가 직접 오셔서, 맥쿼리와 한국 시장에 대해 설명해주셨고, 직접 점심 식사도 대접해주셨다. 맥쿼리가 사람에 대해서 갖고있는 가치관과 기업의 업무 분위기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Bloomberg

Bloomberg에 대해 팀원들은 모두 언론사라고 알고 있었다. Bloomberg 사옥에 도착했을 때, 까다로운 출입 심사를 거쳐야 했다. Bloomberg는 단순한 언론사가 아니라, 가장 값진 데이터를 다루고, 정보를 만들어 내는 회사였기 때문이다. Bloomberg에서 일하고 있는 동문 선배의 강연을 들으며, Bloomberg는 취재에 의존하는 다른 언론사와 달리, 각 국가에서 생겨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이용해, 금융시장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쩌면 홍콩에서 우리가 이전에 방문한 모든 회사들이 Bloomberg 없이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수많은 모니터와 그 안에서 움직이는 숫자들은 이러한 Bloomberg의 영향력을 반증했다. Bloomberg는 홍콩에서 방문한 어떤 기업보다 뚜렷한 IT 기업이었다.

동문만남,클리포드앤스



2018 글로벌 챌린지 참가 소감



홍콩을 방문할 때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진 않았습니다. 함께 방문한 팀원들도 제각기 다른 진로와 관심사를 갖고 한 팀이 되어 기업 탐방을 했는데도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바로 '감동'이었습니다. 방문하는 기업마다 열정을 갖고 우리에게 기업과 그들 자신에 대해 남김없이 설명해주었고, 또한 우리에게 Global Challenge라는 기회를 선물해주신 동문들과의 만남은 서울대생으로서의 자긍심도 갖게 해주었습니다. 글로벌 챌린지 팀원들 모두 과정에서 경험한 바들은 추억으로 남기고,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콩에서 만났던 수 많은 사람에게 받았던 감동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후배들에게 자랑스러운 선배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작지 않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선배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타지에서도 당당히 각자의 위치에서 최고가 되어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신 선배님들을 보며, 적잖은 감동과 자긍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배님들처럼 제게 주어진 기회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여 후배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겠습니다!

TO, 미래의 참가자들에게

저도 여러분들처럼 자부심을 갖고 대학에 입학했지만, 지난 대학생활을 돌아보면 모든 일이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때때로 좌절도 하고, 스스로의 한계를 경험하기도 하며, 힘든 시간도 보냈습니다. 그럴 때면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무엇을 위해 이래야 하나?'하는 고민들이 드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높고 멀리 보라는 조언을 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회를 경험하며, 꿈을 꺾지 않으려면, 눈앞에 닥친 일만 바라보기도 벅찰 때가 많죠. Global Challenge는 제게 그런 바쁜 일상에서 잠시 빠져나와, 다시 놓고 먼 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동안의 크고 작았던 좌절이나 고민을 털어버리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도움 주신 분들

글로벌 챌린지는 홍콩에 계신 동문 분들의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방문 기업 섭외에서부터 후배들과 함께한 만찬 준비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동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홍콩 서울대 총동문회>

강주희(분자생물 98) 김서윤(경제 02) 김형남(컴퓨터 90) 석승욱(법 03) 손원준(경영 96) 송은빈(심리 99) 윤상희(기계 96) 이석준(경제 85) 이주호(경제 95) 이필상(경제 98) 이하얀(전기 95) 임다사름(경영 01) 임선영(언론정보 04)

복수전공 수기

경영학 입문기



서울대 경영대학은 다양한 학문이 결합한 경영학의 특성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자율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학사과정을 개편하고 2018년도 1학기부터 시행했다. 경영학과 학생들의 전공 부담을 줄여 다양한 교양과목 이수과 복수전공을 유도하고, 이과생들의 복수전공 문턱도 낮춰 경영학과 내 학생 다양성을 높이고 복수전공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경영대학의 학부생들과 함께 경영학의 길에 들어선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황유광(에너지자원공학과 13 / 경영학 복수전공)

어릴적부터 에너지 공학자의 꿈을 가지고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군 생활 우연히 마주하게 된 마케팅 서적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전략을 구성하는 것에 흥미를 느껴 제대 후 경영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017년도 1학기 경영학 부전공을 신청했고, 공부하며 더 관심이 생겨 복수전공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총 10과목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경영대 강의들은 공대 강의와 비슷한 점도, 다른 점도 많았습니다.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공대 강의에 비해 경영대 강의에는 수업시간 동안 교수님과 학생 간의 대화가 많았습니다. 답이 정해져있는 경우가 많은 공대 수업과 달리, 경영대 수업에서는 다양한 해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종종 학생들 간의 의견이 다른 경우도 많았고 간혹 교수님과도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경영대 수업 시간에 다루는 내용과 사례들은 일상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주 전공인 에너지 자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학문을 접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 비해, 경영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특히 조직행위론 같은 경우 팀 활동이나 동아리, 학회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경영학 복수전공을 하면서 또 다른 도전인 'N-CEO'라는 경영전략 학회를 하고 있습니다. 학회 활동 이전에는 경영학을 혼자 공부하는 느낌이었다면, 학회에 속한 이후에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학술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경영학을 공부하는 또래 친구들과 꿈에 대해 고찰해볼 수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과 모여서 논의를 하다 보니, 몇 배는 더 큰 시너지를 내고 그 속에서 깨달음의 희열을 느끼곤 합니다. 또한, 학회를 하다보면 다양한 분

야에 진출한 선배들을 만날 일이 많은데, 먼저 비슷한 길을 걸어본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매우 좋은 경험이 되곤 합니다. 무엇보다 학회활동을 하면서 가장 만족하는 것은 함께 고민하고 성장할 동료 있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꿈을 들고 있노라면, 가슴이 벅차고 식었던 열정이 다시 들끓습니다.

경영학 복수전공을 시작한 이후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하고 값진 경험들을 할 수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전히 에너지 산업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저의 꿈을 이곳에만 한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경영학을 배우면서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미래를 그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학교에서 깨닫고 배우는 모든 일들이 저의 새로운 출발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다른 이공계 학우들도 해보길 바라며, 각자만의 바람직한 삶을 그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예주(에너지자원공학과 14 / 경영학 복수전공)

일상에서 접하던 뉴스, SNS에서 이슈가 되는 사건들, 기업 현황에 대해 학문적으로 배우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회계원리'와 '관리회계'를 들으며 배웠던 내용은 인턴생활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경영학과를 복/부전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다양한 과에서 왔고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경영학이 주전공인 분들도 경영학을 다른 분야에 어떻게 적용할까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경영학과 팀 프로젝트를 통해 한 주제에서도 여러 관점으로 생각해볼 수 있었고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지낸 경험이 복수전공을 하며 얻은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복/부전 학생들은 소식이 느리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경영대 행정실과 학생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소식을 알려주며 경영학과 의 일원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자나 메일을 통해 경영대 행사 등 다양한 소식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연석(조선해양공학과 13 / 경영학 부전공)

기업 경영에 관심이 생겨서 경영학 부전공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경영학은 사회에서 어디든 접목할 수 있는 분야임과 동시에 특히 공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관심 있게 듣고 있는 강의에서도 기존의 경영학적 이론 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트렌드에 맞춰 변화하는 경영학에 대해 토론하고, 미래 비즈니스 방향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큰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복/부전공 학생들이 많다 보니 수업에서 팀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다학제적인 팀을 형성할 수 있게 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여러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복/부전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약하다는 점은 아쉬웠으나, 전반적인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나 잘 되어있고 다양한 행사나, 세미나 등도 복/부전생에게 오픈되어 있어 관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기에 타전공생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교류하는데 괴리감이 많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김민국(통계학과 14 / 경영학 부전공)

실제 기업과 생활에서 쓰이는 분야를 공부해보고자 경영학과 부전공을 신청했고 생산관리, 경영과학과 같은 경영학과 강의들을 수강했습니다. 생산관리 수업에서는 실제 기업이 이용하는 다양한 전략들을 배웠고, 경영과학에서는 경영에서 쓰이는 수리적인 모델링들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실제 기업에서 이용되는 학문들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특히 생산관리 수업에서는 교수님께서 다양한 기업의 사례를 말씀해주시고, 직접 기업 사례를 찾아보는 보고서도 작성해보면서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주전공인 통계학과 경영학 내용을 연관시켜 더욱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학문을 공부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다만 부전공생이라서 다른 경영학과 학생들과는 교류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부전공생들에게도 경영학과 주전공생 또는 복수전공생과 교류가 있는 프로그램이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대학의 창업 멘토, 벤처경영기업가센터

“창업”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항상 막연하다고 생각이 든다. 하지만 경영대학에서는 학생/예비창업자를 기업가정신을 지닌 실천적 리더로 양성하고 미래 국부 창출을 위해 벤처경영기업가센터 및 연합전공 벤처경영학과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창업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벤처경영기업가센터 및 벤처경영 연합전공을 담당하고 계시는 경영대학 장정주, 이영민 두 분의 교수를 모시고, 학내에서 창업 활동이 어떻게 활성화 되고 있는지 들어보았다.

벤처경영기업가센터 소개

벤처경영기업가센터는 서울대 학생들에게 기업가(Entrepreneur)로서의 트랙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2014년 설립되었다. 기업(창업)과 관계된 일하기에 경영대학이 주도해서 추진하게 된 것이다. 가장 먼저 교육 과정(연합전공 벤처경영학)이 설치되었고, 재학생 및 졸업생 창업자들이 생기면서 창업 보육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다.



장정주 교수

이영민 교수

Q: 창업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장정주 교수: 창업을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일' 하나만을 지칭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업이란 도전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인정하기보다는 해결하려 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태도 말입니다. 벤처경영학을 전공하는 모든 학생이 창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맡은 바 직분을 문제해결 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도전하는 '창업인'의 마음가짐으로 졸업 후에도 살아간다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영민 교수: 대학을 졸업하면 다양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기업에 취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소위 말하는 직업을 가지게 되지요. 창업을 그런 직업 중의 하나라고 보면 오해가 생깁니다. 창업은 스스로의 삶을 자기가 주도하는 행위입니다. 사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의 일을 한다는 주인의식이 있다면 창업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창업은 직업의 선택이라기 보다는 삶에 대한 자세의 선택입니다.

Q: 벤처경영기업가센터 혹은 연합전공 벤처경영학과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장정주 교수: 뜻을 같이하는 협력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 지식 및 기능적인 부분은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금방 습득할 수 있지만, 창업 활동에 있어 가장 힘든 부분은 뜻이 맞는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혹은 활동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가며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민 교수: 세상을 살아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삶에 대한 태도, 창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익힐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동료들과 창업을 경험하면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Q: 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장정주 교수: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 학생이 성장이라는 걸 했

구나 라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성장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매출이 발생하거나 투자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분석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려는 모습이 가장 보람있고 기억에 남습니다.

이영민 교수: 벤처경영 전공학생들이 여러 회사를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2년간 외부에서 투자받은 금액이 200억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접은 학생도 있고 지금도 다들 고군분투하고 있지요. 지난 여름 방학 때 창업휴학을 한 학생이 학교에 와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데, 창업한 지 만 3년이 되었고 수 차례 외부 투자도 유치했는데 이제야 겨우 학생 티를 벗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창업하면 학생이라고 봐주는 게 없습니다.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고 감사했습니다.

Q: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 혹은 예비창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장정주 교수: 혁신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창업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꼭 창업을 하지는 않더라도 창업의 능력/역량을 갖춘다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회에 나가 본인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역량에 필수적입니다. 창업활동 그 막연함 끝에 무엇을 이루고 싶은 지를 깊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민 교수: 학생들과 이야기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훌륭한 능력과 인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 했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주위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내가 부족하지 않은가, 나만 뒤쳐져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을 사는 거고,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요. 내가 가는 길에 대해 가지는 두려움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설령 가보니 이게 아니다 싶으면 돌아와도 됩니다. 지금의 일 년 이 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친구들보다 오 년 더 살면 되잖아요. 당장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기 보다는 많이 배우고 경험하기를 권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 기고문 ·

‘참 괜찮은 당신’을 위한 세 가지 마음 관리법



당신은 나 자신을 좋아하나요? 혹시 '나 정도면 괜찮지' 싶다가도 내가 너무 부족하게 느껴지진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참 괜찮은 당신과 나누고픈, 자기 긍정성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는 마음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나를 긍정하는 것은 나답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니까요.



마인딩 CEO 옥민송(경영 12)

* 좋은 글을 써주신 옥민송 님께 감사드립니다.

자기자비, 나 자신에게 관대하기

사실 나에게 관대하라는 '자기자비'의 개념은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에게 좀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기대가 크고, 성취 욕구가 높을수록 나에게 엄격해지기 쉬우니까요. 하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의식적으로 노력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에게 관대하면 안주하게 된다'는 흔한 오해와 달리 자기자비는 오히려 더 성장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능력이거든요. 물론 내가 일상을 행복하게 사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요. 사실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매년 나를 무시하고 다그치는 친구보다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좋고 힘이 되잖아요? 나에게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니 내게 조금만 더 관대해져 봅시다. 친한 친구에게, 연인에게 해주는 딱 그 정도만요. 남이 하는 말은 스쳐가지만 내가 하는 말은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하루 24시간을 함께 하는 내가 그 누구보다 큰 힘이 될지, 그 누구보다 큰 짐이 될지는 바로 자기자비에 달려있어요.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하다면 힘들고 부정적 감정이 드는 상황에서 내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의식해 봅시다. 이왕이면 눈에 보이게 적어보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그 말을 같은 상황에 처한 내가 아끼는 다른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제 그런 말은 멈추고, 같은 상황의 내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나에게도 해주세요 :)

내 감정은 나의 것, 부정 감정 대응력 기르기

전 세상에 '필요 없는' 감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부정적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지나치게 고통을 받거나, '감정 조절 하나 못하는 나라'며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부정적 감정을 잘 다루고 싶다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아요.

(1) 감정의 정확한 원인과 효과 파악하기

(2) 원인을 구성하는 인지가 잘못 되었다면 수정하고, 감정을 인정하기
이렇게만 보니 잘 안 와닿죠? 대표적인 부정적 감정인 불안을 예로 들어 볼게요. 불안은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불안을 느낀다면 일단 내가 왜 이 감정을 느끼는지 알아야 해요. 미래에 대한 걱정부터 현재 프로젝트나 시험이 떠오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모든 불안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시작한다란 점이에요. 그래서 사실 불안은 '잘하고 싶을수록' 더 많이 더 크게 경험하는 감정이에요. 그렇다면 잘하고 싶은데 왜 불안해지는 걸까요? 그것은 불안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기능인 '위기 감지 레이더' 때문이에요. 불안할 때 우리는 촉을 바짝 세워 평소보다 위험을 훨씬 잘 감지하고 대처도 재빠르게 할 수 있어요.

마감이 다가오면 능률이 팍팍 오르는 게 바로 이런 이유죠. 불안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을 느낄 때 꼭 없애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보다는 혹시 내가 불안해지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죠. '내가 잘하고 싶어서' 불안하다는 것을 알아채는 거예요. 불안의 원인이 나의 부족함 자체보다 '잘하려고 하는 내 마음'에 있다는 걸 알기만 해도 훨씬 나아지거든요. 또 잘하고 싶어 불안한 나를 이해하면, '불안할 수 있고, 불안해도 된다고, 오히려 잘 될 거'라고 내게 말해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안이 과제 눈앞의 일에 집중조차 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때는 '5분만 집중해보기'처럼 감정에 맞는 작은 방법을 실천하는 걸 추천해요.

긍정적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의식적으로 실천하기

사실 긍정적 감정을 다룬다고 하면 '굳이?'라며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긍정적 감정을 제대로 다루주는 것은 마음 근육을 키우는 데도, 자기 긍정성을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단 그 감정을 충분히 느껴야 해요. 웃음이 나오면 참지 말고 많이 웃고 충분히 기쁘다고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표현해 보세요. 주의할 점은 일부러 감정을 줄이지 않는 거예요. 의아하게 들리겠지만 은근히 빈번한 일이지요. '이 정도로 좋아할 일은 아닌데', '쏟은 노력을 생각하면 당연하지'라며 꺾어내리거나, '이번 프로젝트는 잘 끝냈지만 다음도 그러라는 법은 없어. 자중해야지'라고 나를 단속해본 경험, 있지 않나요? 생각보다 기쁘고 멋진 순간을 마음껏 음미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 조금은 의식적으로 지금 '충분히 좋아하러' 노력해 봐요. 두번째로, 내게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활동을 기억해두고 실천하기! 나에게 기쁨을 주는 활동을 하거나, 매일 나와 의 약속을 지켜감으로써 효능감을 느끼는 거죠. 이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순수한' 감정에 대한 환상 때문이라 생각해요. 저절로 얻어지는 좋은 감정이 좋은 거고, 내가 노력해서 느끼는 건 뭔가 어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행복의 40%는 개인의 실천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요. 내 행동이 좌우하는 영역이 생각보다 꽤 크지 않나요? 그러니 나를 위해 노력해 봐요. 내게 긍정적 감정을 주는 행동들을 실천하는 것은 감정조절력을 기르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좋은 감정 경험은 그 순간에도, 앞으로도 나를 든든하게 지켜줄 거예요.

내가 나에게 관대하고 나를 긍정할 때 나는 더 힘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요.

당신은 분명,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스스로도 그걸 꼭 알아주면 좋겠어요.

생명보험 정산과 독점적 보험시장

Life Insurance Settlement and the Monopolistic Insurance Market

(Insurance: Mathematics and Economics 81 (2018.7): 36-50)

Jimin Hong, S. Hun Seog



1. 연구의 동기

생명보험 전매거래(Life settlement)란 보험계약자(소비자)가 자신의 생명보험계약을 제3자인 투자자에게 매도하는 거래를 가리킨다. 보험계약자는 전매거래를 통해 제3자로부터 전매가격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무 및 보험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권리가 제3자에게 이전된다. 전매거래는 일반적으로 보험 정신에 위배되긴 하지만, 보험계약자가 상속통기의 상실 및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 보험 해약의 경우보다 높은 금액을 받고 팔 수 있으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 나라에서 도입되고 있다.

전매시장의 도입에 대해 학문적으로 찬반 양론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거래를 허용하는 시장의 존재는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 외의 제3자에게 보험계약을 매도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됨으로써, 보험회사의 수요 독점력을 완화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자의 후생을 증가시킬 가능성 역시 언급되기도 한다. 또한 행동경제학적 접근법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들이 해약 확률을 과소평가하는 상황에서 전매거래의 도입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대부분의 경제학적 연구들은 전매시장의 허용이 보험료의 상승을 가져와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전매시장의 도입으로 인해 기존 시장에서의 균형이 깨지면서 그 피해를 보험계약자가 입게 된다는 것이다.

2. 연구의 개요

본 연구는 경제 이론적 접근법을 통해, 전매거래의 도입이 균형에서 보험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동시에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상의 주요 기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2기간 모형의 균형 분석을 통해 전매거래 도입 전후의 보험계약의 변화를 살펴본다. 둘째, 합리적인 개인을 가정한다. 셋째, 기존의 연구들이 마치 보험계약자가 한 명인 것처럼 대표계약자를 가정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여러 계약자들이 서로 다른 유동성 위험에 직면하는 경우를 상정한다. 넷째, 독점보험회사를 가정함에 따라 전매 투자자와 보험회사간의 전략적 상호작용 역시 관찰하고 있다. 즉, 보험회사가 수동적으로 정산시장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약환급금을 책정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정산시장에 대응함을 허용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간 순서를 가정하고 있다. 2기간 모형의 가정하에서, $t = 0$ 시점에서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고 보험을 구입한다. 그리고 $t = 1$ 시점에서 보험계약자는 유동성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해약을 할지 혹은 전매를 할 지 선택하게 된다. 해

약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받고, 전매의 경우에는 전매가격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t = 2$ 시점에서, 남아있는 계약자(즉 $t = 1$ 시점에서 해약 또는 전매를 선택하지 않은 계약자와 전매투자자)의 경우, 당사자(피보험자) 사망 시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최적해약환급금의 수준이 0과 같았던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는 최적 해약환급금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며 양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전매거래의 도입이 독점보험회사의 이익을 낮추어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것을 균형모형을 통해 보인다. 셋째,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정하는 타겟 유동성 위험의 수준은 증가 혹은 감소하는 것이 모두 가능함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후생의 경우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이 모두 가능함을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있으며, 수치예제를 통해 그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3. 연구의 시사점

영국, 독일, 미국 등에서는 정산시장이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도입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정산시장은 보험계약의 증권화 혹은 도박화의 우려와 더불어 보험계약자의 권리 증진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면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도입에 따른 장단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기존의 연구들 역시 찬반 의견이 갈린다. 특히 경제학적 분석을 시행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정산시장의 도입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강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학적 분석의 틀을 이용하면서도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정산시장의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산시장에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경제적 측면 외에도 고려할 사항이 더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아마도 중요한 것은 타인의 목숨에 대한 도박 가능성의 이슈일 것이다. 이 점은 경제적인 면을 넘어 사회 윤리적 측면과 연관이 있는 것인 바, 이러한 측면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수_석승훈



내부 배태성, 지리적 거리와 해외 자회사의 글로벌 지식 소싱

Internal Embeddedness, Geographic Distance, and Global Knowledge Sourcing by Overseas Subsidia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August 2018, Volume 49)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송재용 교수

(공저자 Kazuhiro Asakawa 일본 Keio 대 교수,

박연진 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 김상지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21세기 들어와서 선도적인 글로벌 기업은 글로벌 R&D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혁신 활동의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R&D를 통한 혁신 활동은 전통적인 기업에 있어서는 본국에서 진행하였던 활동으로 20세기까지는 생산과 영업의 글로벌화가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와 초국적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는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범세계적인 관점에서 경쟁 우위 창출을 위해 R&D와 혁신 활동까지 해외로 본격적으로 이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글로벌 R&D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혁신 활동의 세계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전통적으로 해외 연구소의 역할은 본사 내지 본국에서 개발한 기술이나 제품을 현지국에 맞게 개량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해외 연구소의 지식 소싱도 본사/본국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최근 해외 연구소의 역할도 고도화되기 시작하여 현지국에서 기술과 인재를 확보하여 이를 본사/본국에서 확보한 지식과 결합하는 형태로 해외 연구소가 자율적으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로 진화하였다. 21세기 들어와서는 해외 연구소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 본국이나 현지국 만이 아닌 전 세계에서 지식을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혁신적인 기술/제품을 개발하는 단계까지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외 연구소 역할의 진화 양상에 주목하여 해외 연구소가 글로벌 차원에서 지식을 소싱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다각도로 가설을 설정한 후 이를 일본계 글로벌 기업의 해외 연구소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해외 연구소가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상에서 어떻게 배태(embedded)되어 있는지에 주목하였다. 해외 연구소는 글로벌 네트워크 상의 일원으로서의 내부적 배태성과 현지국의 과학 기술 커뮤니티와 연계되어 있는 외부적 배태성이라는 양면적인 배태성 관계하에서 존재하면서 R&D 및 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 동안 연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내부적 배태성 측면, 특히 글로벌 R&D 네트워크 상에서의 본사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가설을 설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배태성의 패러독스'라는 관점에서 지식 및 행정적 관점에서의 내부 배태성이 해외 연구소의 글로벌 지식 소싱에 어떻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본사와 해외 연구소간의 지리적인 거리가 이러한 내부 배태성이 해외 연구소의 글로벌 지식 소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지도 검증해 보았다.

일본계 글로벌 기업의 해외 연구소 데이터와 미국 특허청의 특허 및 특허 인용 데이터를 결합하여 실증 분석을 진행해 본 결과 가설에서 설정한 대로 본사와의 행정적 측면의 배태성은 해외 연구소의 글로벌

지식 소싱을 저해하는 반면 본사와의 지식 연계 측면의 배태성은 이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배태성의 패러독스' 가설은 지지되었다. 또한 지리적 거리는 이러한 효과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그 동안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내부적 배태성의 다차원성 내지 패러독스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이해를 높였다는 데 주요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글로벌 기업의 본사 경영진은 해외 연구소의 글로벌 지식 소싱과 관련하여 잘 조율된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시사점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보면 단기 성과와 통제를 중시하는 행정적 배태성 관점에서는 해외 연구소가 독자적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지식 소싱을 추구하는 것을 본사가 규제해야 하지만, 중장기적 혁신에 초점을 맞춘 지식 배태성 관점에서 보면 해외 연구소의 독자적인 글로벌 지식 소싱을 통한 혁신 역량 강화를 촉진해야 하기 때문에 본사 경영진은 이러한 배태성의 패러독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외 연구소의 글로벌 지식 소싱의 방향성을 명확하면서도 일관성 있게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논문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와 같이 최근 글로벌 R&D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해외에서의 혁신 역량 강화에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한 선도적 한국 기업들에게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수 송재용



한국재벌기업에서 정치연관 사외이사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olitically connected outside directors on firm performance: Evidence from Korean Chaebol firms

(Corporate Governance: An International Review 26: 23-44 (2018))

Jae Yong Shin, Jeong-Hoon Hyun, Seungbin Oh, Hongsuk Yang



1. 연구목적

매년 주중시즌이면 신문에 단골로 등장하는 기사가 상장기업의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들에 관한 것이다. 특히 재벌기업들의 신규선임 사외이사들의 면면을 보면 대학교수나 업계전문가 이외에도 전직 법조인, 국세청, 기재부, 금감원, 금융위, 공정위 관료들이 혼다. 그렇다면 은퇴한 정부고위관료들과 관급사들은 왜 그리 대기업 사외이사로 인기가 있을까? 관련 신문기사들을 보면 정부관료 출신이 사외이사로 영입되는 가장 큰 이유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대관업무 위한 로비스트나 방패막이로서의 역할이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미국 등 선진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도입된 사외이사제도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가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을 막고 주주입장에서 경영진을 감시 및 견제하며 동시에 전문성에 기반하여 회사 경영진에게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회사입장에서는 관피아 사외이사를 영입하는 것이 기업가치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실증적인 답을 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연구가 진행되었다.

2. 연구방법

연구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대규모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각 회사별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사외이사들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 중 정치연관 사외이사들은 1) 전직관료 2) 전직 관급사 3) 전직 정치인 4) 기자, 시민운동가로 구분하여 자료를 상세히 수집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최종 샘플은 총 1,480 기업-년으로 구성되었다. 이외에 실증 분석에 필요한 재무 및 회계데이터 등은 KIS-VALUE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하였다.

3. 연구결과

분석결과 본 연구의 표본기업의 이사회는 평균 총 7명의 등기이사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중 약 3명이 사외이사였다. 사외이사 중 약 32퍼센트가 정치연관 사외이사로 분석되어 재벌기업들은 회사당 평균 1명 정도의 전직 관료, 법조인 등의 정치연관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업군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은 전직 관료였다. 실증분석결과 전년도 이사회 의 규모 및 기업규모가 크고 경영성과가 높으며 영업환경의 변동성이 낮은 기업들이 정치연관 사외이사를 선임할 확률이 높았으며 특히 대주주 지분율과 실제 통제권의 괴리가 높아서 대주주의 사적이익 편취 가능성이 높은 회사일수록 정치연관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정치연관 사외이사를 선임한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

하여 높은 경영성과, 더 우수한 신용등급, 낮은 파산위험과 성과변동성을 보였으며 이는 정치연관 사외이사들의 정부규제에 대한 보호 및 방패막이 역할을 지지하는 발견이다. 그러나 정치연관 사외이사들의 경영진 감시기능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치연관 사외이사들과 기업가치 간의 관계를 연구한 분석에서는 평균적으로 정치연관 사외이사를 선임한 기업의 가치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으며 특히 이들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1) 해당회사의 기업집단 내 다른 계열사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때 2) 대주주가 사내이사를 겸임하고 있을 때 3) 계열종인 소송금액이 중요할 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전직관료의 비중이 높은 회사일수록 이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4. 연구의 시사점

재벌기업의 사외이사마다 꼭 끼어있는 전직 지방국세청장, 전직 공정위 국장, 전직 검사장 등의 관피아 사외이사들은 이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언론의 주장대로 이들이 대관업무를 맡으면서 로비스트와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면 과연 회사는 이들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기대효과를 누리고 있을까? 시장에서는 관피아 사외이사들의 선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들은 과연 경영진의 감시와 견제라는 사외이사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실증적인 분석에 근거한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시사점을 주고 있다.

교수 신재용



가격과 배송 속도,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시소 관계

Beyond the Speed-Price Trade-off
(MIT Sloan Management Review, 2018 summer)
Jason Acimovic, Michael K. Lim, Ho-Yin Mak



온라인 유통업 초기의 공급망은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소수의 대형 물류창고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이는 재고비용을 낮추는 한편 규모의 경제를 최대한 이용하려는 유통업체들의 전략이었다. 고객들 또한 배송 속도에 민감하지 않았으므로 유통업체들에게는 소비자와의 지리적 근접성^{proximity}이나 배송 속도^{speed}보다도 비용 절감이 더 중요했다.

그러나 온라인 유통시장이 크게 변하고 있다. 저가뿐 아니라 빠른 배송도 원하는 요즘 시대의 소비자들을 위해 미국 유통업체들은 지역 내 배달 업체,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무인 락터, 심지어는 드론 택배 서비스와 같은 새롭고 다양한 비즈니스 운영 모델을 시험 중이

다. 이와 동시에 물류 네트워크도 재편하고 있다. 옴니채널^{omnichannel} 업체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해 온라인 주문을 해결하고, 온라인 채널만 보유한 업체들은 주요 도심지 가까이 물류창고를 신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문한 물건을 빨리 받으려면 재고 유지와 빠른 배송에 투입되는 비용을 감안해 훨씬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했고, 이러한 가격과 배송 속도 간의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는 기업들이 공급사슬망 설계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 또한 양상이 달라졌다.

추가 비용 없이도 빠른 배송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IT 솔루션을 도입해 전체 물류 네트워크 상의 매출 및 재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즉, 최근의 온라인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물류민첩성^{distribution agility}”이 강조되고 있고, 물류 네트워크는 단순히 여러 물류창고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관리되고 있다. 저자들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여겨지던 규모^{scale}와 반응성^{responsiveness} 간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최근의 공급사슬망 운영관리 환경하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앙에서 실시간으로 관리/통제가 가능한 주문 이행^{fulfillment} 및 재고보충^{replenishment}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비용 상승 없이도 빠른 배송이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resiliency}도 크게 향상되었다. 위에서 소개한 물류민첩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단계 과정이 필수적이다.

1. 물류 네트워크 디자인의 재편

네트워크 디자인은 비용과 배송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물리적인 물류 네트워크,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정보 네트워크를 재설계해야 한다. 아마존닷컴^{Amazon.com Inc.}의 경우, 네트워크의 민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43개의 소규모 택배 기지와 53개의 허브를 신선했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외형적 확장은 규모의 경제를 약화시키는 단점이 있지만, 재고 상태를 실시간으로 세밀하게 관리하고, 지능형 재고 보충 및 주문 이행을 민첩하게 지원해 주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시간/위치별 매출 데이터, 가용 재고량, 그리고 재고 보충 스케줄을 한데 통합한 실시간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즉각적인 수요 충족 및 예측이 가능하다. 알리바바 그룹의 자회사로 중국 최대 온라인 물류 회사인 차이나오^{Chinao Logistics} 역시 재편된 물류 네트워크와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물류창고의 가용 재고량과 교통 및 날씨 상태를 평가하여 최적의 주문 이행 계획을 수립한다.

2. 정보의 통합 관리

물류 네트워크가 복잡해지면 재고부족이 발생할 가능성도 증가하고 이는 곧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중앙에서 전체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수요를 예측하고 각 매장별/창고별로 정확한 재고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예측에는 시간별 수요, 고객이 원하는 배송 소요 시간, 교통 상황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례로, 매장에서 재고보충을 주문한 시점과 해당 물품이 실제로 도착하는 시점 간의 리드타임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유기적으로 정보를 통제, 관리하지 못하면 물류 시스템 전체에 걸쳐 재고부족 도미노 현상이 발생

할 수 있다.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물류를 관리하는 알고리즘은 네트워크 상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고부족 현상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 주문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를 줄일 수 있다.

3. 가격과 재고를 고려한 주문 이행 의사결정

마지막 단계는 가격과 재고를 동시에 최적화하는 유연한 물류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민첩성이 강화된 물류 시스템은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현재 재고량을 고려하고, 해당 시점에 특정 물류창고에 있는 특정 물품의 가치가 얼마인지 계산하여 이에 따라 주문 이행 의사결정을 신속히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재고 과잉 시 가격을 낮춰 대응했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가격 결정과 주문 이행 결정을 동시에 고려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창고간 (혹은 매장간) 재고의 과잉 또는 부족 현상(즉 수요와 공급의 매칭 문제)을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를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면 가격 인하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된다.

물류민첩성의 개념은 보다 넓은 공급망의 측면에서 제조업에까지 확장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레고 그룹^{Lego Group}이다. 레고는 최신 예측 분석기술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제품과 부품의 생산 계획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바꿔가며 대처했는데, 이는 특정 지역 고객의 주문을 특정 물류창고에 미리 고정시키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할당하는 근래의 민첩한 유통업의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물류민첩성은 공급사슬망 운영 차원에서도 장점을 제공하는데, 갑작스러운 수요 변화나 (재해, 파업 등에 의한) 공급 차질 같은 다양한 리스크 요인으로부터 물류 네트워크의 대처능력을 크게 향상시킨다. 이는 네트워크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문제 발생 시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험을 막는 일종의 울타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민첩성을 강화한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재고 비용의 변동 폭이 커지더라도 물류 운영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수 임재현



1

사회초년생 선배들과 함께하는 'Business Night Live'

지난 5월 23일 경영대학 학생회는 2015년 이래로 매년 5월 사회초년생 선배들을 멘토로 초청하여 'Business Night Live'를 개최했다. 경영학을 전공하는 고학년 학생들이 진로를 구체화하고 취업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CPA, 대학원, IB/금융, 컨설팅, 금융공기업, 로스쿨, 대기업, 창업, 행정고시로 총 9개 분야에서 멘토링이 진행되었고, 멘토링 후,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평소 진로에 대한 궁금증과 취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2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2018 경영학 캠프' 개최

지난 8월 25일 총 20명의 경영대 학우들이 멘토와 스태프로 참여하여 '2018 경영학 캠프'를 개최했다. 경영학 캠프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영학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관련된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관악구 소재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및 봉사활동에도 의미를 두었다. 경영대 학부생의 멘토링과 교수님의 특강이 진행되었고, 경영 시뮬레이션을 통해 학생들에게 경영학에 대해 간접경험을 만들어 주었다.

3

학술적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의 장, '경영대 학회제' 진행

지난 9월 19일 2018 경영대 학회제인 <문계적약회>가 '새로운 경영/경제 정책 제안'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저학년 학우들의 학술적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개최된 이번 학회는 경영대학 패/길/한/백 4개의 반에 포함된 학회들이 자율적으로 주제에 대해 탐구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회제에 참여한 ETX, 상상력, GBA, 등불, 활화산 총 5개의 학회원들은 방학 동안 '새로운 경영/경제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에 대해 작성한 팀페이퍼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했고, 이후 심사위원들의 피드백 및 평가가 이루어 졌다. 매년 진행되는 경영대학 학회제를 통해 학술적인 탐구와 교류 문화가 발전적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해 본다.

4

선배들의 강연으로 경험해보는 전공분야, '작은 강연회' 진행

경영대학 학생회는 학부생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저학년 대상 세부전공 '작은 강연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학부생들은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세부 전공의 기초부터 구체적인 사항까지 폭넓게 탐색해볼 수 있으며, 세부 전공을 처음 접해보는 저학년년부터 새로운 진로를 찾고자 하는 고학년까지 다양한 학부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9월 5일에는 '경영정보' 분야로 LG전자 VC 책임연구원 김정섭 동문(경영89), 9월 12일에는 한국은행에 근무 중인 김승주 동문(경영96)이 '재무금융'을 주제로 함께했으며, 10월 4일에는 '재무, IB' 분야로 두산그룹 네오플렉스 상무 안성국 동문(경영92), 10월 10일에는 '컨설팅&스타트업'분야로 Impact Square의 도현명 대표(경영02)가 강연에 참여해 주셨다. 강연회에 참석한 학부생들은 세부 전공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관련 진로를 간접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5

기업탐방 - 컨설팅과 창업을 동시에 알아볼 수 있었던, '임팩트스퀘어'

지난 10월12일, '임팩트스퀘어' 본사에서 2018년도 제2차 기업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기업탐방은 10월10일에 진행된 작은강연회와 연계되어 진행되었다. 15명의 경영대학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스타트업 컨설팅 및 엑셀레이팅을 진행하고 있는 '임팩트 스퀘어'에 대해 알아보고 알찬 시간을 만들었다. 또한 Q&A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컨설팅과 스타트업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직접 사무실을 투어하면서 탐방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6

저학년 학우들을 위한 길잡이멘토링, '진로설계멘토링'

지난 10월 31일, 다양한 학번과 진로의 선배를 초청하여 관련 진로와 업계 현황, 인생 전반에 대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진로설계멘토링'을 개최했다. 총 9개의 진로 분야에서 진행되었고, 진로별 연사로는 금융(일반)-하나은행 지점장 서문기 동문(경영84), 금융IB-맥쿼리 동북아시아 대표 신중섭 동문(경영89), 대기업-SK 상무 박경일 동문(경영88), 법조계-대한항공 변호사 오세철 동문(경영92), 스타트업-수아랩 인공지능 이사 이홍석 동문(경영08), 언론-(전)로이터통신 선임기자 이창호 동문(경영84), 정부기관-(전)국토교통부 행정사무관 윤정원 동문(경영04), 컨설팅-PWC 비즈니스 컨설턴트 김재환 동문(경영92), 회계-영희계법인 상무 송재익 동문(경영94)이 함께해주었다.

MBA 소식



G/S MBA 학사일정 안내



Case Competition 중 신입생들



GMBA 13기, SMBA 12기 단체사진

2018학년도 GMBA · SMBA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경영전문대학원이 2018학년도 GMBA 13기, SMBA 12기 신입생들을 맞이하였다. 지난 8월 7일부터 8일까지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진행된 2018학년도 G, SMBA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전체 입학생 70명 중 69명이 참석하여 1박 2일간의 일정을 함께하였으며, 앞으로 18개월간의 학교생활뿐 아니라 졸업 후에 평생을 이어갈 MBA 동기들의 끈끈한 우애와 단합력을 쌓는 시간이 되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1일 차인 8월 7일 오전, 박남규 MBA 부학장의 환영사로 공식적인 일정이 시작되었다. 경력 10년이 넘어서 다시 학교로 돌아온 직장인도, 학부 졸업 후 곧바로 진학한 학생도, 오리엔테이션 첫날 다소 긴장한 모습이었으나 간단한 자기소개를 통하여 서로를 알아가게 되었다. 광주 곤지암리조트로 이동하여 "Team of Power"라는 주제로 진행된 실내 팀빌딩 프로그램은 신입생들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신입생 오

리엔테이션 2일차는 학교생활 안내로 시작하였다. GMBA, SMBA 학사 일정과 수강 신청, 졸업 요건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국제교류, 커리어 서비스에 대한 인포세션도 별도로 마련되었다. 또한 박선현 GMBA 주임교수가 지도한 학생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통해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를 안내하고 학생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신입생들에게 공지하였다. 2018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마지막 일정은 박선현 GMBA 주임교수의 지도 하에 G, SMBA 신입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Case Competition 프로그램으로 마무리되었다. 승부를 넘어서 한마음으로 서로를 응원하고 우승팀을 축하하는 과정에서 G, SMBA 신입생들의 결속력을 더욱 견고하게 다질 수 있었다. 1박 2일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일정을 단합된 열정으로 소화하고 이제 서울대 MBA의 일원이 된 GMBA 13기, SMBA 12기 신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한다.

MBA 소식



DBiA 단체사진



기업탐방 in CJ E&M



DMZ 투어



문화체험

'Doing Business in Asia' 개최

경영전문대학원은 지난 8월 9일부터 23일까지 매해 2주간 개최하는 하계 단기연수프로그램 'Doing Business in Asia(아시아 비즈니스의 이해)'를 개최했다. 'Doing Business in Asia(약칭 DBiA)'는 한국, 중국, 일본 3국 정부가 공동지원하는 캠퍼스 아시아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와 베이징대학교, 히토츠바시대학교가 MBA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동 주관한다. 8월 15일(수)부터 19일(토) 4일간 실시된 이번 하계 DBiA 프로그램에는 9명의 서울대학교 재학생들을 포함하여 중국 베이징대학교 광화관리학원과 일본 히토츠바시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ICCS)에서 온 석사과정 및 MBA 학생 총 28명이 참여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진 강의와 함께 FNC엔터테인먼트 기업 탐방, 아모레퍼시픽 기업 인사 강연 등 실제 기업 경영전략을 접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한국 시장의 강점 및 특색을 학습하고, 문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DMZ 투어는 휴전 국가로서 한국의 특수성을 되새기고 격변하는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취해야 할 경영전략을 연구하는 시간을 제공했다. 참가 학생들은 이번 하계 DBiA 프로그램이 국경을 초월하여 동북아 3개국 경영환경을 공동 연구하며 소통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Doing Business in Korea' 진행

경영전문대학원은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Doing Business in Korea(한국 비즈니스의 이해)'를 차례로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본교 재학생 18명을 포함하여 UC Berkeley, IE Business School, University of Toronto, COPPEAD, NUS Business School 등 해외 파트너대학에서 방문한 국내외 MBA 학생 총 54명이 참가했다. 현재 한국의 경제 위치뿐 아니라 한류, 삼성 등 주목받는 이슈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진의 강의를 펼쳐졌으며, 정규 수업 외에도 '한국의 집' 방문 등 문화프로그램과 캠퍼스 투어, 참가 학생들 간 적극적인 네트워킹으로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경험하는 동시에 각국의 다양성 및 가치를 공유했다. 또한,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아모레퍼시픽, LG 사이언스 파크, CJ E&M 등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 탐방이 마련되어 참가 학생들의 열렬한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EMBA 소식



패밀리데이 단체사진

2018 EMBA Family Day

지난 5월 13일(일) 경영전문대학원 Executive MBA(이하 EMBA)과정 총학생회 주관으로 진행된 Family Day 행사가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Family Day는 EMBA 재학생과 가족들을 초청하여 매년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최하는 연례행사로, 가족들이 EMBA 재학생과 학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매년 개최하는 프로그램이다. 오전 10시부터 김태은 EMBA 총학생회장의 개회 선언과 양홍석 EMBA 주임교수의 환영사로 시작했다. 양홍석 EMBA 주임교수는 “EMBA 재학생들이 학업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것은 가족들의 절대적인 지원에 의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재학생 가족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학교를 대표하여 감사를 표시했다.

실내에서 열렸던 예년의 Family day와 달리, 처음으로 야외 장소인 서울대학교 버들골 풍산 마당에서 열린 금번 Family day는 싱그러움 봄바람과 함께 더 흥겹고 열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오전에는 명랑운동회를 개최하여 OX 퀴즈, 윷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공 던지기 등 다양한 팀 대항 단체게임을 통해 EMBA 학생들과 그 자녀들이 순수한 동심으로 돌아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다.

행사당일 새벽까지 비가 내린 덕분에 EMBA 재학생 가족들은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 아래에서 즐거운 오전 시간을 보낸 후 단체로 주문한 도시락으로 다 같이 점심 식사를 진행했다.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는 일요일 오후, 돛자리를 펴고 모처럼 가족과 함께 먹는 도시락은 재학생과 가족들에게 어느 순간보다 행복한 시간이었으며 특히 본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EMBA 학생들의 가족들과도 함께 식사하며, EMBA 구성원은 또 하

나의 다른 가족이라는 의미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오후에는 우수 EMBA 부주임 교수의 ‘공부 잘하는 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기숙사 시설부관장 보직을 겸하며 누구보다도 서울대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참석자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었다. “성적을 위한 공부만을 잘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학생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부모와 학생들 모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주제를 던져주었다. 더불어 서울대 학부생들이 현재 중, 고등학생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공부에 관한 좋은 조언들도 함께 전달하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행사 마지막은 서울대 경영대 밴드의 공연으로 마무리 되었다. 청소년기 자녀부터 나이 지긋한 어른들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공감할 수 있는 흥겨운 음악이 여러 곡 연주되며 뮤직 페스티벌 분위기를 연출했다. 행사에 참여한 EMBA 재학생들은 ‘가족들이 서울대 EMBA 과정에 대해 정확히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른 EMBA 재학생 가족들과 서울대 교수님들을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눔으로써 배우자 또는 아빠/엄마가 주말에 열심히 공부하는 EMBA 과정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으며,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는 EMBA 재학생들에 대한 가족들의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2018 Family day 행사는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EMBA 재학생들에게 앞으로 남은 학업과 학교생활을 한층 더 강한 자부심과 적극적인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강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EMBA 소식



in 스페인



in 프랑스



in 미국



in 이탈리아

글로벌 비즈니스 스쿨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배우다 - EMBA 하계 International Field Study(IFS)

여름 방학을 맞아 지난 7월 경영전문대학원 EMBA 재학생 약 150명이 International Field Study(이하 IFS)를 다녀왔다. IFS는 재학생들이 해외 우수대학을 방문하여 현지 대학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고 해당지역 기업 현황과 실물경제를 체험하며 그 국가의 비즈니스 환경과 주요 기업에 대해 심층 조사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IFS는 미국, 스페인, 이태리, 프랑스 4개국에서 진행됐고, 박남규 MBA 부학장(스페인), 양홍석 EMBA 주임교수(프랑스), 이정연 EMBA 부주임교수(미국), 이우종 EMBA 부주임교수(이태리)가 국가별로 학생들을 인솔하여 학생들의 경영자적 자질과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고강시켰다.

박남규 MBA 부학장이 인솔한 스페인팀은 마드리드에 소재한 IE Business School을 방문해 3일에 걸쳐 기업가정신과 혁신을 주제로 수업을 들었으며 스페인 마드리드에 소재한 다국적 방위사업체 에어버스(AIRBUS) 기업을 방문하여 글로벌 기업의 성공 노하우를 배웠다.

양홍석 주임교수가 인솔한 프랑스팀은 파리에 소재한 명문 Essec 대학에서 유럽 거시경제의 흐름, 프랑스의 제조산업, 프랑스 경제 등 총 5개의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학습을 하였다. 특히 프랑스의 대표적인 글로벌 푸드서비스 기업인 Sodexo를 방문했을 때는 해당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경영철학을 기반으로 한 프랑스식 기업경영에 대해 심도있는 프레젠테이션과 토론이 진행되었다. 또한 Kimberly Clark, 에너지 기업 TOTAL 등 세계적인 기업들을 학생들이 조별로 직접 방문하여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 현실 기업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거졌다. 미국팀은 이정연 부주임교수의 인솔 하에 Yale 대학에서 행동경제학,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시대의 CRM 전략, 협상 사고방식, 이해관계자경영을 주제로 강의를 수강하고 뉴욕으로 이동한 학생들은 3-4명이 1조가 되어 세계적인 기업들을 직접 방문하며 세계경제 중심인 뉴욕을 누비고 다녔다.

이우종 부주임교수가 인솔한 이태리팀은 이태리 최고명문 Business school인 SDA Bocconi 대학에서 이탈리아의 경제, 인수합병, 럭셔리 산업의 개념 및 이해를 주제로 3일간 강의를 수강했다. 강의수강 후에는 증류주 제조 판매기업인 Fratelli Branca 사를 방문하여 이태리에서의 패밀리비즈니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학습하며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을 곧바로 확인하는 기회를 거졌다. 이번 IFS에 참여한 학생들은 해외 명문 비즈니스스쿨을 방문하여 현지 학교가 제공하는 강의와 기업방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음과 동시에 서울대 EMBA에서 들었던 높은 강의수준에 대한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한 동료 원우들과 일주일간 유럽과 미국의 문화와 경영 현장을 함께 체험하며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준 학교와 동료들에 대해서도 많은 학생들이 감사함을 표현하였다.

국내 주요 기업에서 핵심 리더로 재직 중인 EMBA 재학생들의 국제화 감각을 고취시켜 글로벌 Top 수준의 비즈니스 리더 배출을 목표로 하는 IFS 프로그램은 EMBA 학위 취득을 위한 필수과목(2학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졸업 전 최소 2회 참석하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EMBA 소식



2018 뮤직페스티벌

2018학년도 경영인의 밤

음악을 통해 서울대 MBA 가족이 하나가 되었던 경영인의 밤

경영전문대학원 Executive MBA과정(이하 EMBA) 총학생회는 지난 9월 16일 토요일 저녁 6시 반부터 서울대학교 풍산마당에서 뮤직 페스티벌 행사를 기획하여 G/SMBA 재학생은 물론 EMBA 졸업생과 경영대학 교수, 직원까지 초청하여 가을 축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숨겨진 재능을 뽐낼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주고 경영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동문 간 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서울대학교 버들골 옛 노천강당을 새롭게 원형 공연장으로 리노베이션한 '풍산마당'에서 펼쳐진 이번 야외공연은 다소 쌀쌀한 가을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E/G/SMBA 재학생들과 EMBA 졸업생들의 열정과 열기로 가득했다. 박남규 MBA부학장, 양홍석 EMBA 주임교수, 이정연/이우종 EMBA 부주임교수를 비롯한 경영대학 교수들과 행정실 직원들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3부로 구성된 본 행사는 삼성전자에 재직 중인 EMBA 9기 김지환 학생의 사회로 시작되었는데 첫 순서는 재학생들의 노래공연으로, '복면가왕'이라는 공중파 음악 예능프로그램과 유사하게 복면을 쓰고 노래를 하는 공연으로 구성되었다. 복면을 쓰고 출연한 E/G/SMBA 재학생과 EMBA 졸업생은 이날의 행사를 위해 갈고닦았던 실력을 마음껏 뽐냈는데 무대에서 멋진 노래와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동료 출연진 학생들에게 많은 청중은 연신 환호성을 보내며 응원했다. 특히 가왕으로 최종 선정된 EMBA 10기 연구민(GS

에너지) 학생의 공연은 직업 가수를 연상하게 할 정도로 화려한 댄스 실력과 가창력을 보여주어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그 밖에도 GMBA 12기 차민정 학생이 분홍립스틱을 부르면서 미리 준비해온 이쁜 선물들을 청중들에게 던져주는 퍼포먼스를 하자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재학생들의 공연이 막을 내리고 2부 순서인 경영대학 교수밴드의 공연이 시작되면서 경영인의 밤 열기는 더욱더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동안 경영대학 주요 행사에서 꾸준히 멋진 공연을 보여준 교수밴드 'GAROCK(교수의 G, 아저씨아줌마의 A와 ROCK의 합성어 - 이하 가락밴드)의 공연이 시작되자 학생들의 환호성이 쏟아졌다. 박진수 교수, 송인성 교수, 그리고 김우진 교수가 각자 드럼과 기타, 베이스 악기 연주를 맡았고 뛰어난 가창력과 호소력 짙은 목소리의 배종훈 교수가 보컬을 담당하며 청중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마지막 3부 순서는 EMBA의 자랑이자 전통인 '엠바소울'의 신나는 공연으로 2018년 경영인의 밤 피날레를 장식하였다. 이번 경영인의 밤 행사는 EMBA, GMBA, SMBA 재학생, 졸업생 및 경영대학 교수 등 경영대학 식구들을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한층 더 끈끈하게 결속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서울대 MBA라는 동일한 학위과정을 밟고 있는 EMBA 학생들과 GMBA/ SMBA 학생들은 수업 시간이 서로 달라 그동안 함께 할 기회가 별로 없었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같은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 동문으로서 자연스럽게 하나임을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동문 리더스클럽 소식



'SNU BIZ in', '송년의 밤' 개최

학부 학생들에게 실제 경영 현장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영대학 동문 리더스클럽을 창단했다. 현재 약 13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동문 리더스클럽은 강의나 멘토링을 통해 자발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를 희망하는 동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부생들에게 강연 및 멘토링을 통해 선배들의 경험과 인생의 교훈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동문에게 한걸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경영대학은 2018년에는 3월, 6월, 10월 3차례에 걸쳐 동문의 오피스타운을 찾아 'SNU BIZ in' 진행했다. 경영대학 학부, 석사, 박사 졸업 동문을 대상으로 75학번부터 2000년대 학번까지 폭넓은 연령, 다양한 직업의 동문이 모여 어울리는 자리의 알찬 시간이 되었다. 또한 주형환 전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권혁세 전금융감독원장의 흥미로운 특강도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11월 15일에는 동문 리더스클럽 송년회도 진행했다. 2018년 한 해 동안 애써주신 동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 학교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리더스클럽에 가입한 동문 외에도 경영대학 동문이 참석해 주었고, 오랜만에 만나는 동기와 선배 그리고 후배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벤처경영기업가센터 소식



Steemit Meetup 개최

지난 5월 2일 서울대학교 SUPEX홀에서 블록체인 기반 SNS인 스텐잇(Steemit)의 창업자와 Meetup을 진행했다. 본 행사에서는 서울대학교 블록체인 학회인 Decipher에서 Meetup의 개요를 소개하고, OWDIN Network COO 이대승 대표가 '스텐잇(Steemit)'에 대한 소개를 진행했다. 특별히 스텐잇의 창업자인 Ned Scott이 한국을 방문하여 스텐잇 플랫폼 생태계의 미래와 스마트 미디어 토큰(SmartMedia Token)에 대해 강연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여 창업자와 사용자 간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현장에는 학부생부터 업체 임직원까지 총 130여 명이 참석하여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창업자 Talk 진행

예비창업자로서 창업 과정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창업자 토크쇼를 준비하여 예비창업자들의 고민에 대한 창업자들의 의견 및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본 토크쇼에서는 블루홀 장병규 의장, 앙트프러너쉽 교육업체 OEC 장영화 대표, 버즈빌 이관우 대표, 스타일쉐어 윤자영 대표, 서울대학교 이영민 교수가 참석했다. 본 토크쇼는 사전신청을 한 학생들만이 참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0분 만에 사전신청이 마감되는 일도 생겨, 예비창업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기업사회적정당성연구센터 소식



바른 기업의 제시, 기업사회적정당성연구센터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기업사회적정당성연구센터는 정책 연구와 개발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정당성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기업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바로 세우고자 연구하고 있다. 그 연구의 일환으로 기업사회적정당성 연구센터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7월 2일 진행된 제1회 심포지엄은 “한국 기업 정당성 위기와 경영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기업 사회적 정당성 위기의 원인을 살펴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의 모습 즉 ‘바른 기업’의 형태를 정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세기 경제환경변화와 공정거래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기도 해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길재욱 한양대학교 교수 ‘4차산업혁명시대의 지속가능기업:기업가치극대화과 기업지배구조’, 김우진 서울대학교 교수 ‘기업 사회적 정당성 현황과 과제’, 방문신 SBS 논설위원 리더십과 시대정신으로 본 한국 기업

정상성의 현주소, 양형승 연세대학교 교수 ‘기업과 고용’에 대한 내용으로 주제로 이어 박철순 경영대학(원)장의 사회로 패널토의가 진행되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심포지엄에 참석한 참가자들의 심도있는 질문이 이어지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0월 2일에 진행된 제2회 심포지엄은 매일경제신문과 공동으로 “혁신성장과 기업지배구조: 차등의결권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했다. 기업가정신의 활성화와 혁신성장의 촉진을 위한 기업지배구조제도 개혁과제를 토론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이동기 서울대학교 교수의 ‘혁신성장과 차등의결권주식제도’ 주제 발표에 이어,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상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권중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한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 및 학계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한 패널토론은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SNU NEWS [전공별 소식]

회계학



석/박사과정 진로설명회 개최

지난 10월 5일 SK경영관 119호에서 회계학 석박사과정 진로설명회를 이우중 교수의 진행으로 개최했다. 회계전공 박사졸업생 최선화 성균관대학교 교수, 임상균 국민대학교 교수, 선우희연 세종대학교 교수, 안혜진 홍익대학교 교수가 초청연사로 참석했다.



2018학년도 2학기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장학생 선발

지난 10월 18일 소담마루에서 2018학년도 2학기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장학생 선발 수여식을 안진회계법인 이정희 대표, 임동규 상무, 최동희 이사, 황이석 교수, 신재용 교수, 황인이 교수, 이용규 교수를 비롯해 장학생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진회계법인 후원으로 매 학기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장학생으로 선정된 3인에게는 각 20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장학생: 이윤상, 서명범, 정원준)

전공별 취업 현황

마케팅	
이신형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객원연구원
이서진	이화여자대학교 융합연구소 전임연구원
회계학	
선우희연	세종대학교 교수
안혜진	홍익대학교 교수
경영정보	
장문경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정보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인대한	Wharton School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박사후연구원 (Postdoc)

2018년 2월 졸업 기준

2018학년도 1학기 석사논문 현황

전공: 마케팅		
이름	지도교수	논문제목
김새봄	이유재	The Joint Effect of Emoticon and Thinking Style on Ad Effectiveness: The Moderating Role of Product Framing
박지혜	이유재	The effects of Review Configuration on Attitude toward Review in the Electronic Word-of-Mouth (e-WOM) Context: The Moderating Role of Source of Review
이지은	송인성	블로그 포스트 타입이 고객 태도에 미치는 영향
최한울	김병도	Justification Effect of Social Capital: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Video Game Industry
하지현	김병도	A Model of Forward-looking Behavior and Pricing in the Emerging Webtoon Market
허경태	김상훈	Consumer's Quantified Self: Cost of Immediate Feedback

전공: 인사조직		
이름	지도교수	논문제목
김병임	이정연	The moderating effect of invested firm's characteristic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stitutional blockholder's ownership and executive compensation
명세윤	이정연	How and when pay transparency works?: the effect of classified pay transparency on behavioral and attitudinal outcomes
박진원	이경목	Turning on the "Switch": The Performance Feedback Relationship Between Timing of Evaluation and Risk-taking in the MLB context
송병록	윤석화	상사의 비인격적 행동과 부하의 반생산적 과업행동 관계에 관한 연구 - 심리적 계약위반과 정서성향을 중심으로-
유혜진	이정연	Maternity protection policies in organizations: The impact of progressiveness on turnover, productivity, and employee usage
윤수현	윤석화	Leading under stress: Differential Challenge Stress-Hindrance Stress Relationships with Abusive Supervision and Employee Job Performance
임혜령	김성수	Effects of Managers' Depletion of Emotional and Cognitive Resources on their innovative performance
조하영	최진남	Knowledge management behavior and employee creativity: Status seeking strategies as antecedents and team-level perception of social exchange relationship as moderating contingency

전공: 재무금융		
이름	지도교수	논문제목
권지영	석승훈	한국시장에서의 투자이론과 외부자본조달효과
장안조어	조성욱	China's NASDAQ: education-related information of CEO and firm performance.

전공: 전략국제경영		
이름	지도교수	논문제목
류진아	이동기	Stock market reactions to the announcement of CEO succession in family firms
박다운	이동기	한국 서비스 기업의 혁신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기업의 규모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상현	박남규	The Contingent Role of Conflict in Organizational Learning
오몽	이동기	Pride and prejudice: Can CEO Still Enhance Compensation under committee?
이경석	이동기	Sawing Off Dead Branches: Proactive Divestiture and Innovation Performance
정혁	송재용	Platform Leadership in the Era of Rising Complexity

전공: 회계학		
이름	지도교수	논문제목
윤서우	최종학	CEO Risk Aversion and Accounting Conservatism: Some Empirical Evidence
한진웅	최종학	Audit committee financial expertise and the value of cash holdings
홍단	정운오	The Effects of IPO on Tax Avoidance: Comparison between KOSPI and KOSDAQ Listed Firms

교수소식



2018년 4월 1일 ~ 10월 31일까지 게재된(Published) 논문 리스트입니다.

● **김성수 교수 외 (한주훈, H Liao, S Taylor)**

'Effects of High-Performance Work System o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Team Performance: Investigating the Moderating Roles of Organizational Orientations' 논문이 'Human Resource Management'에 게재되었다.

● **김성수 교수 외 (박종욱)**

'Team manager's implementation, high performance work systems intensity, and performance: A multilevel investigation.' 논문이 'Journal of Management'에 게재되었다.

● **김우진 교수 외 (Jin Duan, Baeho Kim, Donghwa Shin)**

'Default probabilities of privately held firms' 논문이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에 게재되었다.

● **박남규 교수 외 (Xavier Martin, Jinju Lee, John M. Mezas)**

'Effects of functional focus on bounded momentum: Examining firm- and industry-level alliances' 논문이 'Strategic Organization'에 게재되었다.

● **박소정 교수 외 (안재윤, 김현태)**

'Does hunger for bonuses drive the dependence between claim frequency and severity?' 논문이 'Insurance: Mathematics and Economics'에 게재되었다.

● **박원우 교수 외 (J. Y. Lew, & E. K. Lee)**

'Team knowledge diversity and team creativity: The moderating role of status inequality' 논문이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에 게재되었다.

● **박진수 교수 외 (이규한, 서지혜)**

'Investigating Knowledge Flows between Information Systems and Other Disciplines: Seeking Greater Research Opportunities' 논문이 'ACM SIGMIS Database: The Data Base for Advances in Information Systems'에 게재되었다.

● **석승훈 교수 외 (Jimin Hong)**

'Life insurance settlement and the monopolistic insurance market' 논문이 'Insurance: Mathematics and Economics'에 게재되었다.

● **송재용 교수 외 (Kazuhiro Asakawa, 박연진, 김상지)**

'Internal Embeddedness, Geographic Distance, and Global Knowledge Sourcing by Overseas Subsidiaries' 논문이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에 게재되었다.

● **송재용 교수 외 (Yuzhe Miao, Keun Lee, Chuyue Chin),**

'Technological Catch-up by East Asian Firms: Trends, Issues, and Future Research Agenda' 논문이 'Asia Pacific Journal of Management (APJM)'에 게재되었다.

● **안태식 교수 외 (황인이, 최연식, 현지원)**

'The Effect of Information Asymmetry and Participative Target-Setting on Target Ratcheting and Incentives' 논문이 'Public Performance & Management Review'에 게재되었다.

● **양홍석 교수 외 (신재호, 김창희)**

'The Effect of Sustainability as Innovation Objectives on Innovation Efficiency' 논문이 'Sustainability'에 게재되었다.

● **윤석화 교수 외 (Lee, S, Kim, S.L.)**

'A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busive supervision and knowledge sharing' 논문이 'Leadership Quarterly'에 게재되었다.

● **이경목 교수 외 (최진남, 양유하)**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Different Forms of Organizational Change Behavior' 논문이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에 게재되었다.

● **이우중 교수 외 (Sophia Hamm, Boochun Jung)**

'Labor Unions and Income Smoothing' 논문이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에 게재되었다.

● **이유재 교수 외 (R. Natarajan)**

'Customer Satisfaction in Asia' 논문이 'Psychology & Marketing'에 게재되었다.

● **이유재 교수 외 (T. Gong)**

'The Effect of Service Quality on Customer Satisfaction, Loyalty, and Happiness in five Asian Countries' 논문이 'Psychology & Marketing'에 게재되었다.

● **임재현 교수 외 (Jason Acimovic, Ho-Yin Mak)**

'Beyond the Speed-Price Trade-Off' 논문이 'MIT Sloan Management Review'에 게재되었다.

● **주우진 교수 외 (Jeongmin Lee, Jisu Yi, Dawon Kang)**

'The Effect of Travel Purpose and Self-Image Congruency on Preference toward Airline Livery Design and Perceived Service Quality' 논문이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에 게재되었다.

● **주우진 교수 외 (Hume Winzar, Chris Baumann)**

'Brand competitiveness: introducing the customer-based brand value (CBBV) - competitiveness chain' 논문이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mporary Hospitality Management'에 게재되었다.

● **조승아 교수 외 (DooHee Chung, Jina Kang)**

'The linkage between TMT knowledge diversity and firm-level innovation: the role of organisational search scope and managerial discretion' 논문이 'International Journal of Technology Management'에 게재되었다.

● **채준 교수 외 (이은정)**

'Distribution uncertainty and expected stock returns' 논문이 'Finance Research Letters'에 게재되었다.

● **채준 교수 외 (이은정, 이유경)**

'Family ownership and risk taking' 논문이 'Finance Research Letters'에 게재되었다.

● **최진남 교수 외 (Chae, H)**

'Contextualizing the Effects of Job Complexity on Creativity and Task Performance: Extending Job Design Theory with Social and Contextual Contingencies' 논문이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에 게재되었다.

● **최진남 교수 외 (Sung, S. Y)**

'To invest or not to invest: strategic decision making toward investing in training and development in Korean manufacturing firms' 논문이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에 게재되었다.

● **최진남 교수 외 (양유하, 이경목)**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Different Forms of Organizational Change Behavior' 논문이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에 게재되었다.

● **황이석 교수 외 (Taejin Jung, Seunghee Yang, and Kyunghwa Yu)**

'Does Managerial Ability Matter in Private Firms? Evidence from Korea' 논문이 'Asia-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에 게재되었다.

● **황인이 교수 외 (안태식, 최연식, 현지원)**

'The Effect of Information Asymmetry and Participative Target-Setting on Target Ratcheting and Incentives' 논문이 'Public Performance & Management Review'에 게재되었다.



서울대학교 MBA, 한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합니다.

세계적인 교수진, 놀라운 취업실적과 연봉상승률,
국내 최고의 동문네트워크와 합리적인 교육비까지
대한민국 MBA교육의 중심은 서울대학교입니다.



프로그램	Global MBA(GMBA)	SNU MBA(SMBA)	Executive MBA(EMBA)
수업연한	1.5년 4학기제		2년 4학기제
수업시간	평일 주간 수업 오전 09:00-13:00, 오후 14:00-18:00		금요일 15:00-19:00 토요일 09:00-18:00
강의언어	영어	한국어 50% 영어 50%	한국어
모집시기	연 1회 상반기 (2~3월경)		연 1회 하반기 (9~10월경)
입학 및 개강	8월 중순		3월 초
수여학위	경영전문석사 (MBA)		

홈페이지 <http://gsb.snu.ac.kr>

서울대 MBA

일반문의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행정실

주간MBA (02)880-2551, 1334

주말EMBA (02)880-2521, 1332



동문소식

경영학부 동문소식

- ▲ 윤대희(경영 69) 신용보증기금 이사 취임
- ▲ 이재경(경영 69) 두산건설 회장 선임
- ▲ 김영상(경영 76)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장 선임
- ▲ 박영석(경영 80) 자본시장연구원장 내정
- ▲ 이윤종(경영 80) 뉴트리바이오텍 대표 선임
- ▲ 이현준(경영 81) 한국시멘트협회장 취임
- ▲ 박정림(경영 82) KB국민은행 부행장 승진
- ▲ 김상훈(경영 84) 한국소비자학회 공동회장 선임
- ▲ 조봉순(경영 84) 대한리더십학회 회장 취임
- ▲ 최낙균(경영 85) 한국은행 목포본부장 승진
- ▲ 김명운(경영 86)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 임명
- ▲ 김현준(경영 86) 서울지방국세청장 임명
- ▲ 김대지(경영 86) 부산지방국세청장 임명

MBA 동문소식

G,SMBA 총동문회 송년의 밤



G,SMBA 총동문회 송년의 밤 행사가 11월 23일 저녁 인터콘티넨탈(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총동문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송년회 행사에 G,SMBA 동문 140여 명이 참석하여 동문들 간의 우애를 다지고 동문회의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GMBA 5

- ▲ 왕기호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SMBC) 서울사무소 본부장 승진

<경영대학 동문 소식을 기다립니다>

경영대학 뉴스레터에 게재할 동기도 소식 및 동문 소식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동문들에게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TEL 02.880.6923 FAX.02.877.0513 문의 E-MAIL freesis1226@snu.ac.kr 담당자 유희라 *동문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